



▲ 경기도농기원, 2019 '레인보우 SNS기자단' 활동 성공리에 마쳐

경기도농업기술원은 2019년 경기농업 일일미로 활동한 '레인보우 SNS 기자단' 활동이 성공리에 마무리 됐다...

철도노조 20일부터 총파업...KTX 등 전 열차 감축 불가피

한국철도 자회사도 동참, 발권 등 주요업무 차질 예상

전국철도노동조합이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오는 20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다.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일방 도입에 반발해 역대 최장기로 73일 파업했던 지난 2016년 9월에 이어 3년여 만이다.

처우개선 등 노사전문가협의체 합의 이행 △철도공공성 강화를 위한 철도 통합, 특히 올해 안 KTX-SRT 고속철도 통합 등을 요구하고 있다.

KTX는 평시의 68.9% 수준으로 운행하고 파업을 하지 않는 SRT를 포함해 고속열차 전체 운행률은 평시 대비 78.5%를 유지한다.

광명동굴, '2019 코리아 유니크 베뉴' 선정



글로벌 관광지 국제 MICE 행사지로 지역 특색한 문화·매력 잠재력 인정

경기 광명시는 광명동굴이 한국관광공사에서 주관하는 '2019 코리아 유니크 베뉴' 30선에 선정됐다고 18일 밝혔다.

한국관광공사는 지난해 선정한 장소와 올해 신규 장소를 대상으로 활용 실적, 위치, 국제 행사 적합성 등을 평가해 광명동굴을 포함한 30개소를 올해 새로운 코리아 유니크 베뉴로 선정했다.

내년 52시간제 中企에 위반 처벌 제도기간 부여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에 대해 법정 노동시간 위반에 대한 처벌을 유예하는 제도기간이 부여된다.

관련 정부 보완 대책 추진 방향'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 될 경우 주 52시간제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현장에서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분을 중심으로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추진하겠다"며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전체 50~299인 기업에 충분한 제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며 "현재 시행규칙에서 '재난 및 이에 준하는 사고 발생시'에만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허용하고 있으나 일시적인 업무량 급증 등 경영상 사유에 대해서도 특별연장근로를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업무 급증 등 경영사유 '예외 허용' 고용부, 50~299인 사업장 보완책

탄력근로제 개선을 비롯한 중소기업 주 52시간제 보완책 마련이 지연되면서 나왔다. 당장 내년 1월1일부터 50~299인 사업장에도 주 52시간제가 적용되지만,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6개월 이상으로 늘리는 근로기준법 개정은 여야 이견으로 인해 올해 정기국회 내 입법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전망이 우세해지고 있다.

교통이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일상 속 교통 안전을 책임집니다. 50 30 자동차 리콜

자동차 안전을 강화합니다. 자동차 리콜

미래교통 혁신을 선도합니다. K-CITY

사회적 책임을 실천합니다.



# 의정부시 100년 먹거리 완성 시민과 함께 첫 발걸음

## 산곡동서 복합문화융합단지 기공식 본격 사업 추진 K-pop공연장 등 조성, 4만 일자리 기업투자 '전망'

경기 의정부시는 100년 먹거리 완성을 위해 최근 의정부시 산곡로 116에서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기공식을 갖고 본격적인 사업에 들어갔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기공식은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도시개발사업 착공을 기념하고 착공하기까지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결실의 기쁨을 시민과 함께 축하하고 소중한 재산과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께 감사의 메시지 전달, 잘사는 도시, 희망도시 의정부 건설을 위한 성공적 완공을 기원했다.

희망도시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감사패와 꽃다발을 주신 산곡동 주민들의 따뜻한 마음에 위로와 감사드리고 '주한미군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을 제정함으로써 오늘 사업이 가능하도록 해주신 의정부의 자존심 문희상 국회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며 "지난 7년간 눈물과 함께 기도하며 오늘 기공식을 갖기까지 수고하신 의정부리듬시티 황영훈 대표께도 따뜻한 위로와 축하의 박수를 청한다"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 수도권에 20만평의 그린벨트부지가 풀릴 것이라고 믿는 사람은 1%도 안 되었지만 오

늘 기공식을 계기로 관광과 문화와 쇼핑이 어우러진 의정부 100년 먹거리를 완성해 잘사는 정부, 세계의 정부, 문화의 정부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화순 경기도 제2행정부지사는 "앞서 경과보고와 안병용 의정부시장님의 말씀을 들으니 정말 오랫동안 공을 들여 여기까지 왔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며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개발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고향 의정부 땅에 세워지는 의정부 복합문화융합단지 조성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원한다"며 파이팅을 외쳤다.

이날 기공식은 태풍 및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피해 상황 등을 고려해 최대한 검소하고 간소하게 준비했으며 이주를 앞두고 있는 독바위, 쇠쟁이등 마을주민이 행사에 직접 참여해 의미와 이야기가 있는 행사로 진행됐다.

특히 경과보고에 앞서 상영한 영상은 '산곡동 과거 100년의 추억을



주제로 산곡동 주민들의 과거 100년의 삶이야기를 주민 소유의 사진으로 구성했으며 '복합문화융합단지 꿈과 비전'을 주제로 군사도시에서 문화관광도시로 재탄생하는 의정부를 담았다.

이날 기공식을 기점으로 본격적인 공사를 시작해 2021년까지 기반 시설 및 부지조성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다며 이번 사업과 병행하거나 완료된 이후 K-pop공연장, 캐릭터 테마파크, 가족형 호텔, 대형할인점, 공동주택 등을 조성해 4만 명의 일자

리 창출과 1조7,000억 원 규모의 기업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는 문희상 국회의장, 권성동 국회의원, 이화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더불어민주당 문석균 상임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지역위원장, 자유한국당 이형섭 당협위원장, 바른미래당 김경호 지역위원장, 김원기 경기도의회 부의장을 비롯해 유관기관 및 사회단체장, 시민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영도 하리항,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재탄생

### 부산시, 하리항 지방어항 지정·고시 안전한 어업과 해양레저스포츠 접목

부산시는 지방어항 지정 요건이 충족되나 소규모 비법정어항으로 되어 있는 하리항을 도심형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재탄생하기 위해 '지방어항'으로 지정 고시한다고 18일 밝혔다.

하리항은 해상낚시터를 갖추고 맨손물고기 잡기 및 어묵만들기 등 다양한 어촌체험을 할 수 있는 곳으로서 매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으나 어선 계류시설 부족, 항내 방파제 등 시설이 노후해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곳이다.

이에, 부산시는 2015년 7월부터 지방어항 지정 계획 수립 및 용역비 2억 원을 투입하여 기본계획 수립 용역, 전략환경영향평가,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중앙부처 협의 등

오랜 노력 끝에 하리항을 지방어항으로 지정하게 되는 것이다. 지방어항으로 지정이 되면 시비 등을 투입하여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하리항은 남항과 동삼혁신지구, 북항을 연결하는 최고의 요충지로서 해양관광, 도시민의 휴식제공 제공은 물론, 다양한 해양레저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해양관광복합형 어항으로 개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향후 중앙부처 협의, 개발계획 수립,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거쳐 외곽시설, 선착장, 물양장 등 시설 확충과 보강 이후에는 안전한 어업활동이 가능함과 동시에 해양레저 기능을 갖춘 다기능 복합어항으로 바뀌게 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 어항이 어업인과 시민이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장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최만식 기자

## '갑질말고 상호존중!' 권익보호 캠페인 성황

### 경기도내 5개 시군 변화가 중심 전개해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전문인력 워크숍

경기도가 감정노동자들의 권익보호에 대한 도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마련한 '감정노동자 사회인식 개선 거리홍보 캠페인'이 지난 16일 도내 곳곳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캠페인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노동존중 공정사회' 실현의 일환으로, 서비스업종 현장 곳곳에서 활동하는 감정노동자들에 대한 인권침해 예방과 건강한 노동문화를 정착하는데 목적을 뒀다.

캠페인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전문인력 양성 교육'에 참여한 교육생 40명 등이 참여한 가운데, 의정부, 부천시, 안양 법계역, 수원역, 용인 수지구청 등 5개 시군 내 유동인구가 많은 변화가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도 관계자는 "우리 모두가 감정노동자라는 인식하에 기업과 소비자, 노동자가 모두 상호 존중하는 문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으로 감정노동자들이 안전한 일터에서 당당히 일할 수 있도록 최우선순위에 적극 앞장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는 올해 감정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전문인력 양성, 사회적 인식 개선 캠페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 10월 26일부터는 '감정노동자 권리보호 및 치유 전문인력 양성 워크숍'을 시작했으며, 오는 12월 12일에는 군포문화예술회관에서 감정노동자를 위한 힐링 토크 콘서트를 개최한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주관사인 ANT스토리㈜(031-469-3354)를 통해 가능하다.

수원/김재일 기자

## 경북도, 산업부 수소융합단지 실증사업 참여

### 포항, 수소연료전지 발전클러스터 구축 예비타당성 조사로 신규과제 신청 밝혀

경북도는 산업통상자원부(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가 주관하는 '2019년 제2차 수소융합단지실증사업' 공모 과제 중 '수소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연구'에 참여한다고 밝혔다.

이번 과제는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에 따른 수소경제 산업 생태계 기반조성 사업으로 기술개발, 인력양성, 표준화, 안전기술 등의 기반을 토대로 수소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수소산업 클러스터란 수소 산업의 각 밸류 체인별로 특정 지역 내 수평 또는 수직적으로 관련된 기업과

기관(대학, 연구소, 지자체)들이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통해 기술 혁신, 기술 상업화, 원가 절감, 품질향상 및 중소·중견 기업 육성 등의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혁신 클러스터를 의미한다.

이번 공모는 지난 3월 산업부 1차 공모에서 제안된 11개 광역시도의 아이디어를 토대로 기획되었으며, △수소 생산 클러스터 △수소 저장·운송 클러스터 △수소 모빌리티 클러스터 △수소 연료전지 발전 클러스터 분야의 4개 과제로 지정되었다.

전경원 경북도 동해안전략산업국장 은 "정부 수소경제 활성화에 부응하여, 지역의 우수한 대학, 연구소, 기업 등을 기반으로 수소산업 인프라 및 실증단지 구축사업을 착실히 준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북도/정승호 기자

## 포천-인천 7600번 공항버스 개통



경기 포천시는 포천터미널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운행하는 7600번 버스 개통식을 포천종합체육관 광장에서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개통식에는 박윤국 포천시장, 조용준 포천시의회 의장, 이철휘 더불어민주당 포천·가평 지역위원장 등 100여 명의 내빈이 참석한 가운데, 김놀이 공연을 시작으로 테이프 커팅식이 진행됐다.

5일부터 운영을 개시한 7600번 공항버스는 1일 4회 운행하며 인천공항행 첫차는 새벽 5시에 포천터미널을 출발해서 7시 40분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 막차는 오후 2시 20분에 출발해 5시 인천공항에 도착한다.

포천행 첫차는 인천공항에서 오전 9시 10분에 출발해 포천터미널 11시 50분 도착하며 막차는 인천공항에서 저녁 6시 40분에 출발해 9시 20분에 포천터미널에 도착한다.

박윤국 시장은 "7600번 공항버스는 잡실행 광역버스와 더불어 생태관광자원이 우수한 포천시의 관광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을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포천/김영근 기자

## 무안군, 의회 의결 거쳐 내년도 조직개편안 마련

### 1월 인사 반영, 조직 안정·효율성 도시계획·정신건강·의정 팀 신설

전남 무안군이 조직개편에 대한 입법예고를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무안군 의회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정기인사부터 반영될 예정이다.

이번 개편안은 2019년 조직진단 계획에 따라 지난 8월부터 각 부서별, 직렬별로 다양한 의견을 제출받은 후에 별도로 구성된 TF팀에서 9월말부터 검토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하게 되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지난 4월20일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기구설치기준에 관한 규정이 인구 10만 미만의 군에서도 국을 3개까지 설치할 수 있게 완화됨에 따

라 신규로 국을 설치할 수도 있었으나, 국을 설치하지 않고 군정의 기획과 예산, 감사, 공보기능 등 과소와의 협력 강화를 위해 기획예산과(5급)를 기획실(4급)로 격상하였다.

이는 도내에서 2국을 설치했던 군들이 규정 완화 이후에도 신규 국 설치를 보류하거나 국 설치 대신 본청과장을 4급으로 조정하는 등 당분간은 2국 체제를 유지하는 쪽으로 신중하게 조직개편 방향을 잡아가고 있어 무안군도 국 설치에 따른 대규모 개편 보다는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 기획예산과를 기획실로 상향하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리고 도와 연계한 재정집행, 예산확보 등 업무능률성 및 효율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복지문화국에 두었던 세무회계과를 부군수 직속으로 배치하고 국별 업무량 조정을 위

해 경제건설국에 두었던 산림공원과를 복지문화국으로 이관하여 국별로 6개과를 두도록 했다.

그밖에도 전국 및 단위 체육대회 유치업무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스포츠마케팅팀을 신설하는 한편 의회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해 의정팀을 신설하고 현재 무안, 일로, 망운에 설치되어 있는 권역형 맞춤형 복지팀이 내년부턴 6곳에 추가로 설치되어 전 읍면으로 확대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 1월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던 만큼 금년에는 조직의 확대보다는 안정과 효율성을 목표로 조직개편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삼향읍 분리여부, 오룡지구 개발추진 등을 신중하게 지켜본 후에 추가적인 조직개편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라고 한다.

무안/조기성 기자

www.huic.co.kr

하남 시민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이름의 집을 짓습니다.

하남도시공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나눔경영 실천을 통하여  
바람직한 공기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 정기봉사활동과  
취약계층 주거정비사업, 저소득층 지원사업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하남시민 모두의 마음속에  
사랑이라는 집을 짓고 있습니다.

Hanam Urban Innovation Corporation  
huic 하남도시공사

# '경기도, 민관협력 아동의 안부를 묻다' 정책 전국 확대 기대

**민선7기 대표적 아동돌봄 정책 촘촘한 돌봄 서비스 구축  
31개 시군과 협력, 16만4천 여 명의 아동 가정 직접 방문  
연령 따른 공백 없는 촘촘한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 박차**

민선7기 경기도가 아동의 안정적 성장환경 조성을 위해 추진 중인 다양한 아동돌봄 서비스 사업이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특히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은 정부에서도 우수시책으로 평가함에 따라 전국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민관 협력 아동의 안

도록 보건복지부와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긍정적 답변을 내놓았다. 이와 관련 도는 지난 9월 사업의 전국 확대를 위해 보건복지부와 16개 광역자치단체에 사업성과를 공유하고, 매년 3분기 '주민등록 사실조사'시 위기 아동을 특정 대상으로 설정해 전국적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 외에도 기존 돌봄 체계에서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경기도의 돌봄서비스 체계 구축 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앞서 돌봄 체계 보안을 위해 지난해 12월 28일 개최된 '아동돌봄 구축 방안 토론회'에선 돌봄기관이 평소 오후 5시까지만 운영되고, 특히 방학 중에는 오후 1~2시까지만 운영됨에 따라 돌봄 공백이 발생되고, 취약계층에 우선되는 지역아동센터의 한계 등의 문제점이 도출됐다. 2018년 기준 경기도의 공적돌봄 이용률은 영유아가 70.8%(58만/82만)인데 비해 초·중·고 학생은 11.3%(8.5만/75만 명)에 불과하다.

아동돌봄공동체는 현재 고양시, 성남시, 파주시, 수원시, 가평군, 부천시, 이천시, 의정부시 등 8개소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도는 오는 2022년까지 모두 70개소로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작은도서관을 활용한 '아이돌봄 독서문화프로그램'도 인기를 끌고 있다. 이 사업은 맞벌이 부모들의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방과 후 시간부터 저녁 7시까지 운영한다. 이를 위해 도내 48곳의 작은도서관을 선정해 한 곳당 5~10명 내외의 초등학생을 모집했고, 각 도서관에서 돌봄 아동의 연령대에 맞는 독서토론·북아트·미술활동 등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을 7월부터 운영 중이다. 마을 내 빈 곳을 활용해 돌봄 공간을 설치하고 지역여건과 수요를 고려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비지원 사업인 '다함께 돌봄센터'도 올해 28억여 원을 투입해 22개 시군에 37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며, 현재 15개소가 개소돼 운영 중이다. 도는 올해 추진된 사업성과를 토대로 내년부터는 좀 더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조례제정을 추진 중이다. 도는 조례가 통과되면 이를 근거로 향후 5년간 241억여 원을 투입해



부를 묻다' 사업은 경기도와 31개 시군이 협력해 통·리장이 양육수당을 받는 도내 16만4,052명의 아동 가정을 직접 방문해 살펴보는 서비스다.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각 시군의 통·리장들은 일일이 해당 가정을 방문한데 이어 특이사항이 기록된 2,098명의 가정을 읍면동 공무원이 재차 방문해 아동 10명에 대해 복지서비스를 연계했고, 63명은 복지상담을 진행했다. 나머지 2,025명은 별다른 문제점이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런 가운데 민선7기 이재명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처음 시도한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이 전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 경기도의 설명이다. 앞서 10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정인화 국회의원이 진영 장관에게 "경기도 아동의 안부를 묻다" 사업의 전국 지자체 확대를 제안하자, 진 장관은 "취약계층을 발굴해 정부가 적극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경기도의 제도가 전 지자체에서 확대 시행될 수 있

토론회에선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 각 시군에 설치된 '작은도서관' 운영 시간 확대, 학교 체육관 활용, 학교 도서관 활용한 '돌봄 도서관' 운영 등을 통한 '돌봄 사각지대' 보완 등의 대안이 제시됐다. 이에 도는 제시된 안을 토대로 체계적 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2019년 4월 아이돌봄협의회를 구성한데 이어, 7월에는 아동돌봄 전담조직 4개 팀으로 구성된 '아동돌봄과'를 신설했다. 아울러 민선7기 공약사업으로 10명 이상 주민이 모여 만 12세 이하 돌봄이 필요한 모든 아동을 돌보는 '아동돌봄공동체 조성사업'을 추진 중이다. 도는 올해 모두 10개소를 선정해 개소당 1억 원 이내의 시설공사비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중이다.

다함께 돌봄센터 426곳 확대 설치 지원, 근무 년수에 따른 종사자 처우개선비 15~20만원 지급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봉태 경기도 아동돌봄과장은 "경기도의 아동돌봄 서비스 구축은 지역 상황에 적합한 서비스가 공백 없이 제공되는 것이 핵심이다"라며 "올해에는 만12세까지의 아동의 돌봄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 신설과 돌봄협의체 구성, 조례제정 등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경남도, 대규모 조직개편 통해 청년·노인·여성 전담부서 신설한다

**사회적경제, 인재양성, 사회혁신 도지사 직속으로 배치  
'청년과 노인' 전담부서 신설 내년도 도정방향 핵심 설정**

민선7기 경남도가 사회적경제, 청년·노인 문제 해결 및 여성권익·가족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두 번째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선다.

△ 사회적경제와 인재양성, 사회혁신은 도지사가 직접 챙긴다

기존 사회혁신추진단에 이어 사회적경제추진단과 통합교육추진단을 도지사 직속기구로 편제한다. 도지사가 강조해 오던 사회혁신, 인재양성 및 사회적경제를 직접 챙기게 됨으로써 사회적 가치 제고와 지역 맞춤형 인재양성, 도민 참여영역 확대로 사회혁신 추진을 본격화 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명으로 보인다.

△ 2020년 도정운영 핵심방향은 '청년과 노인'...전담 조직 신설

청년정책추진단을 확대 신설하여 청년정책 발굴·지원, 청년 생활안정 및 활동지원 등을 통해 청년인구 유출 방지와 유입 기능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또한,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복지와 신설로 치매안심센터 운영, 노인돌봄서비스와 노인일자리 창출 업무 등을 전문적·조직적으로 책임 있게 전담하게 된다.

△ 여성권익·가족가치 향상을 위한 국(局) 신설

기존 여성가족정책관과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을 '여성가족청년국'으로 신설 격상하여 여성권익과 가족지원 업무를 강화한다.

특히, 내년 7월 여성가족정책연구 기능을 전담하게 될 (가칭)여성가족정책연구기관 설립에 차질 없이 준비한다는 목표다.

△ 인구정책, 정책 전반으로 확산

저출생고령사회정책관의 인구전략담당을 도정 정책 전반을 총괄·조정하는 정책기획관 인구정책담당으로 편제하여 된다. 이로써, 도정 주요정책 개발 및 수립 시에 인구정책을 기반으로 한 정책개발체계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 '일자리경제국 직제 개편,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와 창업 활성화 제고

일자리경제국 일자리정책과를 일자리경제과로, 경제기업정책과를 창업혁신과로 변경하여 일자리를 포함한 경제정책 총괄 조정, 민생경제 안정 및 창업 활성화 기능을 강화한다.

**여성권익, 가족지원 업무 강화 위한 여성가족청년국 신설  
인구정책은 정책기획관 소속 편제, 정책 전반으로 확산돼  
일자리경제국 개편 통해 경제정책 컨트롤 타워 역할 강화**

△ 전담조직(擔當) 신설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가속화 및 평가체계 확립

정책개발 및 성과평가 전담조직(擔當)을 신설하여 신규정책 개발 기능을 강화하고 '도정 4개년 계획' 이행과제 성과 가속화 및 평가체계 확립을 통해 도민이 체감하고 만족하는 도정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또한, 재정 투입에 대한 분석과 컨설팅 기능 강화를 위해 재정컨설팅팀을 신설한다.

△ '대변인' 신설, 도정 핵심정책 홍보전담 역할 수행

정책보도 및 도민과의 온·오프라인 소통 강화를 위해 정책홍보보좌관(대변인)을 신설하고, 홍보관을 소통기획관으로 변경함으로써 홍보의 전문성과 도민과의 소통 기능을 강화한다.

△ 공무원 조직문화 개선 추진

특히, 인사과 후생담당을 공무원권익담당으로 변경하고, 조직문화개선을 통한 내부 공무원 권익 향상 전담인력을 보강함으로써 직장 내 괴롭힘 방지를 주도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편제, 핵심전략사업 추진 가속화

미래전략·신공항사업단을 경제부지사 직속으로 직제 개편하여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인 대형프로젝트사업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해



핵심전략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 한편, 재난안전건설본부의 도로과를 도시교통국으로 이관하여 도로계획 및 교통정책을 연계한 광역교통체계의 효율적 개선 등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 도민 접점 현장 행정서비스 강화 위한 인력 보강 및 국가시책 추진

스마트 판, 먹거리 지원 및 농축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현장인력을 보강하고, 정부의 핵심과제이면서 주요 국가시책인 수소산업 육성에 매진하게 된다.

경남도 조직개편안에 따르면 본청은 기존 1실 2본부 10국 68개과에서 1실 2본부 11국 70개과로 1국 2개과가 증설되고, 총 정원은 5,905명에서 6,003명으로 늘어난다.

이번 조직개편안은 도정 사상 처음으로 외부 연구용역을 실시하여 미래 행정수요 반영과 부서별 적정인력 배정 등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결과를 토대로 만들어 진 것이다 의미가 있어 보인다.

아울러, '함께 만드는 조직'을 위해 내·외부 토론회와 소통을 통해 조직개편안을 마련했다. 내부 조직진단과 조직 수요조사 등 면밀한 사전조사를 거쳤고, 실국장 토론회와 도의회 사전 간담회 등을 통한 다양한 현장의견 수렴, 내·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직관리위원회 심의과정을 거쳐 조직개편의 전문성을 높였다.

경남도 관계자는 2018년 하반기 대규모 조직개편이 도정운영의 길잡이인 '도정 4개년 계획'이행에 초점이 맞추어졌다면, 이번 개편안은 '정책을 도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잘하는 기능 중심의 생산적·효율적 조직'으로 만들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직개편안은 11월 중 도의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제368회 경남도의회 정례회 심의·의결을 거쳐 2020년 1월 2일자로 시행할 예정이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호주 멜버른에 '해외 10번째' 평화의 소녀상 세워져

### 화성시·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 건립 멜버른-건립 부지와 설치비용, 화성시-바자금 운영 자금

호주 빅토리아주 멜버른 한인회관 앞에 '평화의 소녀상'이 세워졌다. 이번 소녀상은 해외에 10번째 설치된 것으로, 경기 화성시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와 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건립추진위원회가 공동으로 건립했다.

멜버른 추진위는 건립 부지와 설치비용을 부담하고, 화성시 추진위가 자체 모금활동, 바자회 운영 등을 통해 모은 기금으로 소녀상을 제작했다.

화성시는 멜버른과 소녀상 건립 대상지 협의를 위한 행정절차를 지원했고, 화성시 산하기관, 기업체, 사회단체, 시민이 자발적 기부로 힘을 보탰다.

화성시 추진위는 앞서 2015년 11월 캐나다 토론토 한인회관, 2016년 10월 중국 상하이사범대학교에도 소녀상을 설치한 바 있다. 이번을 포함하면 해외 10개 소녀상 중 3개소 건립에 화성시민이 함께 한 것이다.

'멜버른 평화의 소녀상 제작식'은 현지시간 14일 오후 7시 한인회관에서 열렸다.

제작식에는 서철모 화성시장을 비롯한 조준제 멜버른 추진위원장, 정

미애 화성시 추진위원장, 김서원 한인회장, 윤미향 정의기억연대 대표 등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제작식에는 지난 8월 별세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넬란드계 호주인 안-루프-오해른 할머니의 딸과 손녀가 함께 해 그 의미를 더했다.

화성시와 화성시·멜버른 추진위는 기념행사에서 '평화의 소녀상 건립 및 관리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향후 소녀상 유지관리를 위해 상호 협력키로 했다.

시는 멜버른 한인회관을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어 소녀상에 대한 반대 가적을 뿐만 아니라 지자체 앞에 위치하고 있어 전시 효과가 더욱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미애 화성시 추진위원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립기금을 모금할 계획"이라며, "기회가 주어진다면 지속적으로 소녀상 건립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조준제 멜버른 추진위원장은 "소녀상 장학금을 만들고 여기를 학생들의 교육장소로 활용해 미래세대가 평화의 정신을 이어가도록 하겠다"며, "또 평화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



들이 함께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서철모 화성시장은 "소녀상 건립은 과거를 기억함으로써 우리 후손들이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역사 운운"이라며, "앞으로도 소녀상이 전하는 평화의 메시지가 전 세계에 전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일제하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평화의 소녀상은 민간에서 주도하고 기업체와 시민이 기금 모금에 함께 참여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2011년 12월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 처음 설치된 소녀상은 현재까지 기림비 포함 국내 102개소, 해외 10개소에 건립됐다.

화성/김용범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 '기업SOS 이동시장실' 운영

### 인바이오테크㈜ 애로사항 논의 취임 이후 현장중심 소통행정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상록구 사동에 있는 폐기물처리 및 폐수처리 전문기업인 인바이오테크를 찾아 기업현장의 어려움을 듣고 기업발전 방안을 논의하는 등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운영했다.

윤화섭 시장은 지난해 7월 취임 이후 기업인과의 소통을 위해 '기업SOS 이동시장실'을 매달 운영하는 등 기업인과의 만남을 이어가는 등 현장중심 소통행정을 펼치고 있다.

이날 윤화섭 안산시장은 운영중 인바이오테크 회장 등 임직원들을 만나 공장을 견학하고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기업 운영과 근로 여건 등 기업애로 사항과 시정전반에 관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이날 방문은 '기업체 작은 도서관'의 개관식도 겸해 이뤄졌다. 인바이오테크 본관 3층 휴게실에 조성된 도서관은 안산시 중앙도서관의 지원을 받아 약 600여권

의 도서와 열람대, 의자 등이 구비돼 사동 준공업지역의 근로자들의 독서를 돕게 된다.

기업체 작은 도서관은 공단지역에 기업체 도서관 조성을 지원, 근로자들의 독서환경 개선 및 독서장려를 통해 독서문화진흥과 책 읽는 기업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 이날 개관한 인바이오테크(주) 10번째 기업체 도서관이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여러모로 노력해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사회가 발전하면서 현대사회에서는 환경문제가 중요한 화두인 만큼 기업이 발전하기를 바라며 시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운영중 인바이오테크 회장은 "작은도서관 개관 등 기업과 근로자들을 위해 안산시에서 여러모로 애써 주심에 감사드린다"며 "진한 경직인 폐기물처리과정 등 업계를 선도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안산/이승배 기자

## 안병용 의정부시장 행복두리센터 현장 방문

### 지하1층·지상3층, 면적 3,700㎡ 규모 내년 8월 준공 약 24% 공정을 추진

안병용 경기 의정부시장은 최근 녹양동 407-4번지 상에 건립중인 의정부행복두리센터(종합사회복지관)를 방문해 지역주민들과 함께 사업 진행상황 등을 점검했다고 18일 밝혔다.

행복두리센터(종합사회복지관)는 지하1층 및 지상3층, 연면적 3,700㎡ 규모로 국비 43억 원, 시비 47억 원 등 총 90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다.

2020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지난 7월 공사에 착수하였으며, 현재 지상 1층 골조 공사 중으로 약 24%의 공정률로 계획 대비 순조롭게 추진 중이다.

주요 시설은 지하층에 주차장과 기전실, 지상 1층 사무실과 소강

당, 카페 등을, 지상 2층 컴퓨터실, 프로그램실 및 체력단련장, 지상 3층 프로그램실과 식당, 대강당 등이다.

이날 공사 현장에 함께 참석한 지역주민들은 행복두리센터 건립으로 구도심으로 그동안 열악했던 우선권역의 복지환경이 개선되어 지역 간 복지 불균형이 해소되고 양질의 복지서비스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행복두리센터(종합사회복지관)가 지역주민의 복지 증진을 위한 중추 역할을 물론 시민과 더불어 나누고 소통하는 어울림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한다"며 "홍선권역의 열악한 복지환경을 개선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건립되는 만큼 공정대로 차질 없이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파주시 '두부사려 똑똑똑' 행안부 최우수 선정

### '국정목표 실천 우수 지자체 경진대회'서 민관 협력 주민돌봄체계 구축 높은 평가

경기 파주시 윤정3동은 지난 13일 지역농산물 파주장단공동부부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이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경기 파주시 윤정3동은 지난 13일 지역농산물 파주장단공동부부를 이용한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고독사·자살사고 예방을 위한 '두부사려 똑똑똑' 사업이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18일 밝혔다.

신계숙 파주시 윤정3동 맞춤형복지팀장은 "복지현장에서 체험한 주민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2년 간 주민과 함께 한 공동체 활동이 경진대회를 통해 최우수상을 받게 돼 더욱 기쁘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오산시, 역대 부시장 초청 간담회 개최

### 시승격 30주년 맞아 발전방안 논의

경기 오산시는 시청 상황실에서 역대 오산시 부시장을 초청해 시 승격 30주년을 기념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오산시가 시로 승격된 지 30주년을 맞이해 지난 30년 동안 오산시에 부임해 시정발전에 기여한 역대 부시장을 모시고 오산시의 발전된 모습을 공유하고 앞으로 발전을 위한 제언 등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제8대 조섬범, 제10대 남대기, 제11대 문홍길, 제13대 이정열, 제15대 박익수, 제16대 오용근, 제19대 심기보, 제21대 이강

석, 제22대 유영봉, 제23대 김태정 역대 부시장과 제24대 현 김문환 부시장 및 국과장 등이 함께 참석했다.

오산시의 시정 현황 설명을 시작으로 발전에 대한 토론회, 관내 주요시설 시찰 등의 시간을 통해 오산시가 발전한 모습을 공유했으며 앞으로 발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들이 오고갔다.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은 "오산시가 짧은 기간 인구 23만의 중견도시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역대 부시장님들이 부임하는 동안 최선을 다해 오산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신 결과"며 "오산시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협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오산/김용범 기자

## "자치분권, 지역안보·시민안전 더 잘 지킬 수 있다"



### 염태영 수원시장, 통합방위협의회서 당부 주민 안보 의식 높이기 위해 분기별 회의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은 "현장에 더 많은 권한, 재원이 있으면 시민 안전과 지역 안보를 더 잘 지킬 수 있을 것"이라며 "자치분권"을 강조했다.

염태영 시장은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가 지난 15일 기업은행 경수지

역본부 동수원지점 회의실에서 연 2019년 4분기 정기회의에서 "자치분권으로 안보와 시민안전까지 담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합방위협의회 의장인 염태영 시장을 비롯한 민·관·군·경 통합방위협의회 위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회의는 △ 감사패 수여 △ 신규위원 소개 △ 군 관련 사항 보고 △ 자유토론 등으로 진행됐다.

염 시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

정(지소미아) 종료로 앞두고, 국내에서 한반도 안보 관련 논의가 이어지고 있다"면서 "지역사회·시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해 달라"고 당부했다.

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사회 통합방위 유공자 최순옥 전 수원시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호 전 수원소방서장, 고경홍 전 기업은행 동수원지점장 등 6명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또 이형우 수원교육지원청 교육장, 이경래 수원남부소방서장, 정병천 경기남부보훈지청장, 오유성 559군사안보지원부대 지원대장 등 신규위원을 소개했다.

수원시통합방위협의회는 지역 통합방위체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안보 의식을 높이기 위해 분기별 회의의 연다.

'통합방위'란 적의 침투·도발이나 위협에 대응해 국·군·지역방위 예비군·민방위대 등 각종 국가방위 요소를 통합하고 지휘체계를 일원화해 국가를 방위하는 것을 말한다.

수원/김재일 기자

## 최종환 시장, 월릉면 방문

경기 파주시 월릉면의 오랜 숙원사업인 도내4리 군방호벽 정비사업이 지난 10월 22일 준공돼 최종환 파주시장은 월릉면 군 방호벽 정비현장을 방문하고 지역주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도내 4리 방호벽 정비사업은 수십년간 주민들이 불편을 겪은 군 방호벽을 차량 교행이 가능하도록 정비하기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그동안 소형 차량만 통행이 가능해 겪었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특히 화재 등 위급상황 발생 시 소방차의 통행이 어렵고 대형 농기계의 출입도 불가능해 겪었던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도내4리 군방호벽 정비사업 준공으로 차량과 농기계의 출입이 자유로워지고 소방차의 출입도 가능해져 시민들의 안전을 책임질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군 협의를 통해 군 방호벽을 정비하고 시민들이 더 편리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고양시, 한국-세르비아 수교 30주년 세미나

### '고양 스마트시티' 우수성 소개 IT산업 대한 높은 관심도 보여

이재준 경기 고양시장은 한국-세르비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세르비아 수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 '도시정책 경험 공유세미나'에 초청받아 고양형 스마트시티의 우수성을 소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는 수교 3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스마트기술을 공유하기 위한 것으로 고양시는 2017년 세계스마트시티기구 어워드에서 금상을 수상하고 이어 올해 스마트시티 시범인증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국내뿐 아니라 해외에서도 호평을 받아온 바 국토부 및 여러 지자체, 학계 인사와 함께 행사에 초청받게 됐다.

고양시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

티'라는 주제로 IoT 스마트 보행로 스마트 에어클린 버스벨터 스마트 쓰레기 수거관리시스템 등 여러 혁신적인 IoT 기술을 소개했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 스마트시티 사업을 보다 넓은 동유럽 무대에서 소개하게 되어 영광"이라고 밝히며 "세르비아 수교 30주년을 맞아 이번 방문이 국경을 넘어 도시와 도시 간 다양한 교류의 물꼬를 트는 시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이재준 시장은 방치된 가스저장소를 상업·문화·주거단지로 탈바꿈한 오스트리아 빈의 '가소메타 시티', 문화적 도시재생의 성공사례로 평가받는 프라하 '카사르나 카틀린'을 방문하고 도시계획·재생 연구센터인 IPR 관계자를 면담하는 등 문화적 도시재생을 위한 전략을 모색하고 오는 20일 귀국할 예정이다.

고양/김성태 기자



## 나주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 시민 눈높이 공약

### 시민 평가단 22명 선정, 공약추진 평가 민선 7기 종료 시까지 자문 역할 수행

전남도 나주시는 최근 시청 이화실에서 민선 7기 공약 이행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공약이행평가단 위촉식'을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 달 18일부터 31일까지 2주 간 평가단 모집 공고를 실시, 무작위 공개 추첨 방식으로 총 22명의 단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날 공약이행 평가단으로 위촉된 위원들은 민선 7기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인 오는 2022년 6월 30일까지 공약사업 관련 자료 요청, 공약이행 사항 모니터링 및 평가, 공약실천계획 변경, 조정 등에 있어 자문 역할을 수행한다.

위촉식에 참석한 강인규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나주시정의 주인인 12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투명하고 신뢰받는 민선 7기 공약사업을 추진될 수 있도록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내려주시 바란다"며,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다양한 삶의 영역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아이디어 발굴은 물론, 공약사업이 올바르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시정의 나침반 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기

대한다"고 말했다.

시는 공약이행평가단과 함께 정기, 수시 회의를 통해 공약 변경 등에 대한 조정·심의, 시민 의견 청취, 평가 등을 실시, 해당 사항을 시청 누리집에 공개해 공약 추진의 투명성과 신뢰도 제고에 힘쓸 계획이다.

한편, 민선 7기 나주시는 '함께여는 미래, 호남의 중심 나주'를 슬로건으로 △다함께 고르게 잘사는 지역 △윤택한 명품 혁신도시 △은 가족이 행복한 나주 △시민이 주인이 된 지방정부, 혁신하는 지방행정 △소비자와 생산자가 상생하는 자치농업 △청년이 우뚝 서는 나주 △문화와 예술이 살아 숨 쉬는 나주, 7대 분야 공약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민선 6기에 이어, 7기 시정을 이끌고 있는 강인규 나주시장은 공약 추진에 있어, 남녀노소, 세대계층, 도시와 농촌 등 전 시민의 행복을 아우르는 보편적 복지 시책을 비롯해, 에너지신산업 집적을 통한 대한민국 에너지수도 건설, 호남의 중심으로 도약하기 위한 권역화 및 비전에 중점을 뒀다.

시는 특히 지난 4월 공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한 연차별 계획과 재정투자계획을 충실히 담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나주/김영만 기자

# 與 "美 방위비 분담 요구 과도... 한국당, 대응 나서야"



## 이인영 "한국당 반대에 결의안 채택 지연... 입장 밝혀야" 박주민 "여당 비난 중단하라"·설훈 "결의안 채택하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미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요구와 관련, 자유한국당을 향해 국회 차원의 공동 대응을 위한 협조를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바라보지 말고, 방위비 분담금에 대한 입장을 분명하게 밝혀달라"며 "국회 차원에서 미국의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요구에 대한) 공동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방위비 분담금 문제의 공정한 해결을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이 제출돼 있지만 한국당의 반대로 채택이 미뤄지고 있다"며 "우

리 국민의 95%가 공정한 방위비 분담금을 촉구해 국론 통일이 이뤄진 것과 다름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뜻대로 이번 본회의에서 공정한 분담금을 촉구하는(국회)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도록 한국당의 전향적 검토와 입장 전환을 요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미국이 무리한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미국 정가에서조차 나온다. 갑자기 막대한 증액을 요구한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야 한다"며 "앞으로 협상이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뤄지기 위해 방위비 책정과 사용에 관한 제도적인 보안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한국당은 분담금 협상 과정에서 정부여당을 비난하는데, 이런 행동을 중단하라. 국익을 나몰라라 하는 주장"이라며 "한국당은 방위비를 5배 증액하라는 요구에 동의하는 것인가. 분명한 입장 밝혀야"고 말했다. 박관은 최고위원은 "미국 정부는 방위비 분담액을 더 확보하는 것보다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을 얻는 것이 미국 이익에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는 사실을 부인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 정부는 주한미군의 존재 시혜적 관점에서 바서는 안 된다. 한국 안보는 물론 미군 안보에도 매우 기여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 최고위원은 "그런데 이 시기에 한국당의 여정정한 태도가 걱정스럽다"며 "미일 계산에 공조하는 듯한 모양새를 보이는 한국당 모습은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서라면 국가의 이익은 아무래도 관계 없다는 뜻인가. 한국당은 최근 1~2년 사이에 단 한 번이라도 국익을 위해 목소리를 낸 적이 있는가"라고 날을 세웠다. 설훈 최고위원도 "내일(19일) 우리 당 의원 74명이 발의한 방위비 분담금 결의안을 처리하자"며 "국회가 한 목소리로 공정한 합의를 촉구한다면, 방위비 분담금 문제와 관련해 우리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기 위해 방미길에 오르는 3당 원내대표단에도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백귀성 기자**

## 박지원 "임종석, 삼고초려하면 돌아올 수도"

"당정청 쇄신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순간" "김세연 불출마, 부산시장 출마 위해 베행" 박지원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18일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전 날(17일) 사실상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것에 대해 "정치권에서 삼고초려하면 또 돌아올 수도"고 내다봤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와의 인터뷰에서 "그러한 인물을 정치권에서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며 이렇게 말했다. 박 의원은 "평양 감사도 나가기 싫으면 그만이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그래도 정치권에서 임 전 실장을 부른다"고 하면 본인도 응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큰일을 할 것이라고 본다"고도 덧붙였다.

임 전 실장의 불출마 선언이 이른바 '86세대'에 미칠 파급력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촉망받던 386·586세대의 선두주자인 임 전 실장이 그러한 결단을 했다고 하면 여권 내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한 "당과 정부, 청와대의 쇄신으로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본다"며 "당정청 쇄신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순간"이라고 언급했다. 박 의원은 현 정부 청와대 출신 인사들의 총선 준비 움직임에 대해서도 "청와대에 들어갔으면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자기 장래를 위해서 총선 출마하겠다고 전부 뛰어다니면 가관"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정철 민주연구원장과 백원우 부원장, 임 전 실장까지 이렇

게 (불출마)하면 이제 제 길로 가야 한다"면서 "또 그대로 반복된다고 하면 국민들로부터 진짜 많은 비난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박 의원은 김세연 자유한국당 의원의 불출마 선언에 대해서 "아마 다음 한국당이 이렇게 가서는 모든 걸 다 놓칠 수 있다. 어렵다 하는 것을 일단 표명하고 자기가 불출마 선언했지 않았는가 본다"며 "약간의 출구를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 의원이) 부산시장이 목표였기 때문에 이번에 출마를 하더라도 2년 있다가 시장으로 출마하려면 의원직을 사퇴해야 한다"면서 "그때는 또 명분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세계 배팅을 한번 했다, 그렇게 해석한다"고 밝혔다. **/최광수 기자**

## 청소년 반값버스비 검토 요청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문경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교육청에 대한 2019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청소년 버스요금 지원범위 및 버스운송관리시스템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이날 문경희 의원은 "경기도가 13세~23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버스비를 지원하려고 하고 있는데 현재 무상교육의 범위가 고등학교까지 늘어난 만큼 13세에서 18세의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기존의 30% 할인에 버스비를 20% 더 지원해주어 반값버스비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 허승범 교통국장은 "현재 집행부 안은 13세부터 23세까지 버스요금을 지원하는 포괄적 복지의 시행이지만 추가적인 검토는 가능하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영광군의회, 농공·산업단지 입주기업 간담회

전남 영광군의회는 최근 영광군 대마전기자동차산업단지 및 군서·송림 농공단지 입주기업 대표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대마전기자동차 산업단지 및 군서·송림농공단지를 직접 찾아 현장에서 진행했으며 기존 기업지원 시책과 더불어 내년 신규모 시행될 시책에 대한 안내와 함께 농공·산업단지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지 입주기업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대표들은 대마산단 입주기업의 원스톱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입주기업 관리사무소 설치, 신규 투자기업 외 기존 기업에 대한 지원, 원거리 근로자 채용 시 주거비용에 대한 지원, 사업자 전기세 감면, 지역적 한계로 인한 인력 채용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줄 것을 요청했다. 강필구 의장은 "대내외 경제의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소기업 경영에 어려움이 많을 것이라 생각한다며 의회 차원에서 중소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정책들을 많이 발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최

경기 파주시의회는 오는 20일부턴 다음달 19일까지 30일간의 일정으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활동에 들어간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내년 한 해 파주시의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2020년도 본예산안을 비롯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10월 임시회 가 취소되어 미처 살피지 못한 조례안 등을 재정비하는 등 시민생활과 직결된 총 39건의 안건을 심도있게 심의할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는 11월 20일 제1차 본회의에서 최종한 파주시 장으로부터 시정연설을 청취하고 11월 21일부터 12월 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한다. 이어서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고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해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을 심사하고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손배찬 의장은 "이번 회기는 2019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로 2020년도 본예산과 시민생활과 밀접한 조례안 등 중요한 안건의 심사가 예정되어 있다"며 "시민이 내 주신 혈세로 이루어진 예산안이 낭비없이 편성됐는지, 불필요한 예산이 편성된 것은 아닌지 등을 면밀하게 심사해 줄 것"을 당부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이천시의회,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조례 공포

경기 이천시의회는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농작물 및 농업용 시설물의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의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서학원 의원의 발의한 '이천시 농작물 재해보험 지원 조례'를 공포했다. 농작물 재해보험은 매년 반복되는 자연재해, 병충해, 조수해, 질병 또는 화재로 발생하는 재산 피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농가의 안정적인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보험으로써 그동안 농가의 부담이 높아 보험가입률이 높지 않았다. 특히 올해 8번의 태풍 등 잦은 자연재해로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이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된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국·도비를 제외하고 농업인이 부담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50 이내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자부담 비율이 기존 10%에서 5%로 대폭 낮춰 농가 부담이 상당히 줄어들어 보험가입률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서학원 의원은 "잦은 자연재해로 피해를 입는 농민들의 어려움에 도움을 드리고자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농민들의 복지부본에서 농업을 생산적인 관점에서의 열위 산업으로 인식하기 보다 공공재적인 성격의 공익적 기능에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천/남시현 기자**

**의정부시**  
UIJEONGBU CITY

**시민이 잘 살고 건강한, 희망도시 의정부**

천혜의 자연경관 속에 유서 깊은 역사를 간직한 의정부는 시민과 호흡하며 도시의 가치를 높여 나가고 있습니다.

# 평택시, 남아프리카공화국 6·25참전 기념행사 개최



## 제2전투비행대대 총 1만2,067회 출격 혁혁한 전과 올려 전투에서 세운 공적 기리고 산화한 37명 영령 닉 추모

경기 평택시가 15일 용이동 소재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에서 제69주년 남아프리카공화국 6·25참전 기념행사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이종호 평택시 부시장, 제나니 들라미니 남아공대사, 지갑중 유엔한국참전국협회장, 권영화 평택시의장, 김경태 공군작전사

령부참모장, 정병전 경기남부보훈지청장, 보훈단체 지회장, 6·25참전유공자회 회원 및 남아공대사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해 영령들의 넋을 위로하며 헌화했다.

평택시 용이동에 위치한 남아프리카공화국 참전기념비는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수호하기 위해 남아공에서 파견한

공군들이 전투에서 세운 공적을 기리고 전쟁에서 산화한 37명 영령들의 넋을 추모하기 위해 수원·송탄·안성 비행장의 중심인 현 위치에 1975년 건립됐다.

남아공은 1950년 10월 16일부터 휴전 후인 1953년 10월 29일까지 유엔참전 16개국 중 유일하게 공군만을 파견했으며 '날으는 치타'로 불리는 제2전투비행대대는 총 1만2,067회 출격해 북한군 탱크 44대, 고사포 진지 147개소, 교량 152개소, 각종시설 1만920개소를 폭격하는 등 혁혁한 전과를 올린 것으로 기록돼 있다.

만델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전 대통령의 장녀이기도 한 제나니 들라미니 남아공대사는 추도사에서 "남아공 전사지들에 대한 감사의 구체적 상징인 평택의 남아공 참전기념비는 매우 특별한 장소"며 "남아공 참전용사들과 그들의 가족, 자손들을 대표해서 행사를 준비해 주신 평택시와 6·25참전유공자회, 그리고 모든 평택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정장선 평택시장은 추도사를 통해 "69년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비롯한 국내·외 참전 용사들의 값진 희생이 있었기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세계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됐다"고 강조하며 "6.25참전용사들의 고귀한 희생을 잊지 말자"고 전했다.

평택이동원 기자

## 경북도,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 예방접종 당부

### 인플루엔자를 예방합시다.

1. 인플루엔자 예방접종받기
2. 올바른 손씻기의 생활화
3. 기침예절 실천
4. 증상발생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기

### 감염예방·확산방지 위한 손 씻기 기침예절 등 개인위생 준수 당부

경북도는 전국 인플루엔자 의사환자수가 7.0명(경북 6.3명)으로 유행기준을 초과하여 지난 15일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가 발령되자, 인플루엔자 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올바른 손씻기, 기침예절 지키기 등 개인위생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이에 국가예방접종 대상자 중 아직까지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65세 이상 어르신, 생후 6개월~12세 어린이, 임신부는 예방접종을 서둘러 완료해야 하며 주수지에 관계없이 전국 보건소 및 지정의료기관\*에서 무료접종이 가능하다.

인플루엔자 유행 시기에는 사람이 많은 장소 방문을 피하고, 38℃ 이상의 발열과 기침, 인후통 등 인플루엔자 의심증상이 있는 경우 가까운 의료기관에서 신속

하게 진료를 받아야 한다.

유행기간 동안 영유아 보육시설, 학교 등 단체 생활을 하는 시설은 인플루엔자 예방 관리를 강화하고, 인플루엔자 진단 시 등원·등교를 자제해야 한다.

노인요양시설 등 고위험군이 집단 생활하는 시설에서는 입소자 등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입소자의 인플루엔자 증상 모니터링을 강화하며, 호흡기 증상이 있는 방문객의 방문을 제한하고, 증상자는 별도로 분리하여 생활하도록 해야 한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인플루엔자 유행이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미접종자는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며 "원활한 백신 공급을 위해 도 및 시군에도 충분한 백신을 확보하고 있으며 도민 면역력 향상을 위한 예방접종 시행과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하남, 일반음식점 영업주 위생교육

경기 하남시는 최근 시청 대회의실에서 일반음식점 영업주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도 일반음식점 기준 영업주 위생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지난 9월에 실시한 위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한 영업주를 대상으로 실시됐으며 영업주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매년 식품위생교육 3시간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한국의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하남시지부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은 식품위생법 설명, 식중독 예방교육, 친절서비스 교육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날 참석한 김상호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경기침체 등으로 인한 일반음식점 영업주 여러분의 어려움을 시는 잘 알고 있고 올 한해 긴 터널을 함께 지나왔지만 하남시의 지역 화폐인 '하머니'를 통해 골목상권의 심폐소생술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또한,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골목상권과 대규모 점포에 대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며 유통과정이 변하는 것에 발맞춰 스마트 전통시장의 활성화 및 온라인 유통을 골목상권으로 확대, 골목상권의 조직화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지하철 5호선 개통에 따라 교통 편리로 인한 골목상권 활성화 방안 등을 펼쳐나갈 방침이다.

하남/남시현 기자

## 나주소방서, 나주의용소방대기술경연대회 개최

### 상호간 협력과 상호증진시간의장 마련 9백여명 참여... 화합 한마당 축제도 성료

전남 나주소방서는 18일 나주종합스포츠파크에서 강인규 나주시장, 김선용 의장, 손금주 국회의원, 이민준, 최병수 도의원,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등 9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활력, 매력, 온정이 넘치는 의용소방대 기술경연 대회 및 화합한마당 축제를 실시했다.

이날 행사는 나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에서 주최하였으며 그동안 현장활동에 필요한 기술경연으로 재난대응능력을 향상하고 의용소방대 상호간 협력과 우호를 증진하고자 소중한 시간의 장이 마련되었다.

본 행사는 1부에서는 소방호스 끌기, 훌라후프 넘기기 기술경연이 실시되며 2부에서는 그동안 소방행정과 소방 활동에 공헌한 의용소방대원 51명에 대해 국민훈장, 국회의원, 시장, 시의장, 서장 표창수으로 진행되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지난 2일 독도 상공 소방헬기 추락사고로 인하여 엄숙한 분위기 속에 행사를 간소화하여 소방호스끌기 등 2종 및 표창만 진행되었다.

대회종합우승은 중부의용소방대, 준우승은 반남의용소방대, 장려상은 남평의용소방대가 차지했다.

김광식, 허현숙 나주시의용소방대연합회장은 오늘 뜻깊은 의용소방대 경연대회와 화합한마당 행사를 통하여 대령화제는 물론, 어떤 재난에서도 시민의 안전을 지킨다는 긍지와 믿음을 시민들에게 심어주고, 불철주야 고생하는 소방공무원과 함께 안전문화를 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도연 나주소방서장은 "각종 재난 현장에서 시민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그 역할을 묵묵히 수행하고 계신 의용소방대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감사를 보내며 앞으로도 지역 안전을 지키며 봉사하는 의용소방대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나주/김영만 기자

## '겨울철 스키장 리프트 사고' 대응체계 확립한다

###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민관 40여명 참여 스키장리프트 사고 고립, 인명구조 훈련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와 포천소방서는 겨울 스키철을 앞두고 포천시 내촌면 소재 베어스타운 스키장에서 '2019 겨울철 스키장 리프트 사고 대응 합동훈련'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합동훈련은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북부특수대응단과 포천소방서 구조대원 및 베어스타운 스키장 안전요원 등 총 40여 명이 참여, 리프트 정지 사고 시 고립자 구조를 위한 실전과 같은 훈련을 실시했다.

겨울철 스키장 리프트 사고는 이용객의 고립으로 인한 공포감 확산, 2차 인명피해 등이 예상돼 보다 전문적인 구조활동이 요구된다.

이에 따라 △ 이론교육 △ 구조장비를 활용한 수직 진입구조 △ 케이블 도르래 접근구조 △ 소방드론 및 빅사이트 로프 설치 △ 팀별 구조기



법 공유 △ 본부-소방서 구조대원 간 합동훈련 등을 중점적으로 진행했다.

오제환 북부특수대응단장은 "경기 북부에는 대형스키장 2개소가 있고 스키철 이용객이 30만 명 이상이다. 동등으로 인해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시기"라며 "이번 훈련을 통해 구조대원의 사고대응 전문능력을

강화하고 도민 안전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키장 리프트 안전사고 발생 시 행동요령은 신속히 119로 신고하고 구조대원이 도착하기 전까지 개별행동은 금해야 한다. 이후 구조대원 및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구조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

의정부/김영만 기자



## 번개처럼 빠르게 저장하다

###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 Thunderbolt™ 3 외장 스토리지

Thunderbolt™ 3 기술과 NVMe 인터페이스를 탑재한 삼성전자 포터블 SSD X5는 전문 콘텐츠 제작자에게 필요한 눈부신 전송속도를 선사합니다. 슈퍼카를 달은 세련된 디자인, 첨단 열 처리 기술과 암호화 기술로 완성한 최상의 스토리지를 경험해보세요.

\* USB 인터페이스 기능만 지원하는 PC에서는 호환이 불가합니다. Thunderbolt™ 3 포트가 설치된 Macs 및 Window PC에서만 호환 가능하며, 호스트 구성에 따라 성능은 다를 수 있습니다. (Mac OS X Sierra, High Sierra 10.12 또는 그 이상, Windows 10 64 bit RS 2 또는 그 이상) 최대 읽기/쓰기 속도 실험 시스템 환경: Dell Alienware System (Dell 17 Alienware 17 R5), OS - Win 10 x64, CPU - Intel® Core™ i7 8570H@4.1GHz, Memory - DDR4, 16GB 2667 MHz, BM Tool - CDM 5.1.2

X5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samsung.com/portable-ssd](http://www.samsung.com/portable-ssd)에서 확인하세요.



# 의정부시, 민통선 일대 야생멧돼지 ASF 검출 '비상'

### 총 25건 발생, 오는 22일까지 집중포획 선포

### 야생동물 기동포획단 5개팀 운영 보상금 지급

경기 의정부시는 지난 13일 기준 철원 11건, 연천 8건, 파주 6건의 누적 25건에 이른 민통선 일대의 야생멧돼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Africa Swine Fever)바이러스가 연이어 검출됨에 따라, 관내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18일부터 22일까지 집중포획 주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시는 유해야생동물 기동포획단을

3~4명을 1개 팀으로 5개 팀을 편성하여 포획주간 동안 24시간 운영하고, 멧돼지 포획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포획보상금과 사체처리비, ASF 감염 여부 확인을 위한 시료 채취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10월 14일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동포획단은 현재까지 36마리의 야생멧돼지를 포획했다. 집중포획 주간을 위해 등산로 입

구 등에 산행자제, 안전사고 유의 등의 내용으로 홍보 현수막 38개, 행정복지센터 행정계시대 등을 통해 홍보하였으며, 시 홈페이지 및 전광판, SNS, 그리고 행복소식지 등 다양한 홍보수단을 통해 시민들에게 포획단의 포획활동을 안내할 예정이다.

아울러 포획활동 중 총기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기동포획단을 대상으로 총기사용 준수사항 등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하고, 야생멧돼지 아프리카돼지열병(ASF)표준행동지침(SOP)에 따른 사체처리 요령과 사체 운반 시 분비물 등 누출되

지 않는 등 철저한 방역을 위한 교육을 11월 5일 실시한 바 있다.

의정부시는 ASF 질병감염 확산방지 및 예방을 위한 집중포획 기간 활동을 통해 멧돼지 포획실적 제고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총기포획에 따른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입산 통제와 입산물체취 금지, 등산객과 주민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시민 안전이 가장 중요한 만큼 ASF 차단에 앞서 시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광명소방서, 소방차 골든타임 '7분 도착률'

###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5분 40초 걸려 도내 1위 달성



경기 광명소방서(서장 전용호)는 9월 말 기준 화재현장 골든타임, 신고 접수부터 현장 도착까지 5분 40초로 도내 1위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화재현장 골든타임(7분 도착률)은 신고 직후부터 소방차를 기다리는 정서에 맞춰 신고 접수 2분, 차고 출발에서 현장 도착까지 출동소요 5분 등 7분을 기준으로 소방차 도착률을 설정하고 있다.

9월 말 기준 광명소방서의 화재현장 7분 도착률은 83.3%로 도내 평균 도착률 47.2%와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이다. 이것은 화

재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을 보여준다.

광명소방서는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매일 1회 광명시와 경찰 합동으로 전통시장 등 소방차량 진입곤란·불가지역에서 소방차량 통행로 확보훈련 및 길 터주기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으며, 주 1회 각 센터별로 소방차량 진입곤란지역 지리조사 등 통행로 확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광명소방서장은 지난달 10월 광명시 기관장 협의체 회의에 참석하여 소방 출동 시 이동경로의 신호를 제어하는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 안전을 제출하였고 현재 광명시와 경찰서 등 유관기관이 함께 설치 협의 중에 있다.

전용호 광명소방서장은 "화재는 빠른 현장 도착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소방차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소방차 길 터주기 캠페인 등 훈련에 시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광명/김영선·박종철 기자

# 양주, '구 화학대대 관동도로' 개방

경기 양주시는 산북동에 소재한 舊 화학대대 관동도로를 18일부터 상시개방한다고 밝혔다.

해당 도로는 지난 2012년 경사와 굴곡이 심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이용객들의 안전사고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민원이 제기되어 온 곳이다.

특히 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정치권에서도 지역구 의원인 정성호 국회의원이 국방부 관계자와의 면담과 대안 제시 등을 통해 개방을 요청해 왔으며 지난 2015년 6월 '경기도-3군 정책협의회'안건으로 정식 상정돼 부분개방에 합의한 바 있다.

그러나, 상시개방이 아닌 부분개방으로 인해 지역주민 등 도로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낮고 성묘철 산북동 일원에 산재한 장묘시설과 공원묘지 등 이용객 증가로 인한 다수의 민원 발생, 관할 군부대의 출입문 개폐 등 관리상의 문제 등으로 인해 상시개방에 대한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이에 양주시는 지난 10월 관할 군부대인 8사단에 부분개방이 아닌 상시개방을 건의하고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 8사단의 작전성 검토에 따른 전향적 수용을 통해 상시개방을 이뤄냈다.

산북동 舊화학대대 관동도로는 군부대측의 울타리 보강공사 등 완료 이후인 18일부터 상시개방할 예정으로 원활한 차량통행이 가능해져 지역주민과 공무원이 이용객 등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전망이다.

이성호 양주시장은 "지역 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7년여에 걸친 상시개방 노력이 드디어 결실을 맺게 됐다"며 "도로 편의성과 접근성 향상이 등산객 등 이용객의 증가로 이어져 산북동 일대 지역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 전남, 수능 이후 청소년 탈선 예방

전남도는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18일부터 5일간 청소년 유해업소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도, 시군 공무원 4개 반 49명과 특별사법경찰관이 권역별로 실시한다. 소주방, 호프집 등 400여 곳을 단속할 예정이다.

대학 수학능력시험 이후 연말을 앞두고 청소년의 탈선행위가 우려되는 유흥가 밀집지역 등 퇴폐번태업소를 대상으로 청소년 탈선 예방을 위해 야간 단속을 한다.

최병용 전라남도 식품의약과장은 "수능시험 이후 청소년의 유해업소 출입 예방을 통해 그들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하도록 온힘을 쏟을 것"이라며 "카페, 호프집, 단란주점 등을 집중 단속해 적법 업소는 사법기관에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김택윤 기자

# 경북소방본부, 풍력발전기 화재대비 현장적응훈련

### 고가사다리차, 무인방수차 동원 구출 및 다인형 직사관창 사용 하방수거리 향상

경북소방본부는 영덕풍력발전에서 풍력발전기 화재대응능력 향상을 위해 남화영 소방본부장 및 소방공무원, 풍력발전관계자 37명과 소방차량 7대가 참가한 가운데 현장적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경북도 내 풍력발전소는 13단지 167기가 운영 중에 있으며, 최근 10년간 전국에서 5건의 풍력발전기 화재가 발생했으나 경북에는 아직까지 한건의 화재도 발생하지 않았다.

최근 재생에너지 확산 정책에 따라 도내 풍력발전기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대부분 산간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신속한 소방차량의 투입이 어렵고, 풍력발전기(높이 65m~115m)

의 높이와 날개 낙하에 따른 안전거리(40m이상) 확보로 인해 화재진압에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분석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기존 일반관창보다 30%이상 원거리 방수가 가능한 다인형 직사관창을 적용했으며, 고가사다리차, 무인방수차량 등 다양한 소방차량을 활용해 풍력발전기 화재 대응 방안을 강구했다.

남화영 경북도 소방본부장은 "풍력발전기 화재는 지리적 여건과 높이로 인해 화재진압에 어려움이 많으며 산불로 번질 우려가 있어 초기 대응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원거리 방수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과 현지적응훈련을 통해 화재진압 대책을 수립하여 지속적으로 훈련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부산시, 광역처리시설 반입 폐기물 합동단속 실시

### 중량제봉투 내 혼합여부도 확인해 위반사항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

부산시는 지난 5월 상반기 폐기물 반입 합동단속에 이어, 11월을 '폐기물 광역처리시설 합동단속의 달'로 지정하고, 시민의 쓰레기 분리배출의식 제고와 폐기물처리시설의 안정적이고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부산시, 부산환경공단, 주민감시원 총 84여 명으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편성, 광역처리시설(소각시설, 매립시설, 연료화시설) 반입 폐기물 운반차량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 중량제봉투

내 재활용품,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여부 △ 전용봉투 미사용 △ 사업장 생활폐기물 배출자 미표시 △ 반입대상 외 의류 및 지정폐기물 반입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폐기물 관계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과태료, 시정명령 또는 폐기물 반입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다.

가정이나 소규모 음식점 등에서는 재활용품이나 음식물쓰레기를 분리해 중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하고, 1일 300kg 이상 배출하는 대형사업장에서는 쓰레기봉투에 배출자 이름과 전화번호를 표시해 배출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수집 운반자는 전용봉투의 배출자 표시 여부, 재

활용품 및 음식물쓰레기 등 혼합배출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수거해야 한다.

부산시 관계자는 "광역처리시설로 반입되는 폐기물 단속은 폐기물처리시설의 사용기한 연장, 재활용 분리배출 활성화 등에 도움이 된다"라면서 "가정 등에서 쓰레기 줄이기 및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부산시는 광역처리시설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쓰레기 분리배출에 대한 주민홍보와 폐기물 반입차량에 대한 상시단속 그리고 매년 2차례 실시하는 합동단속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부산/최만식 기자

# 수원 무궁화원, '나라꽃 무궁화 명소'로 선정

### 고색동에 200여 개 품종 2만여 주 재배 무궁화해설 프로그램 운영해 호응 얻어



경기 수원시가 운영하는 '수원 무궁화원'이 산림청이 주관하는 '제6회 나라꽃 무궁화 명소' 공모에서 우수상(산림청장상)으로 선정됐다.

시상식은 산림청 주최로 최근 울산 동구 라한호텔에서 열린 '도시숲·정원 정책 담당자 워크숍' 중 열렸다. 우수상 상금은 200만 원이다.

산림청은 나라꽃 무궁화의 위상을 높이고, 무궁화 명소 조성에 이바지한 우수 지방자치단체를 선정·시상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있다.

이번 공모에는 수원 무궁화원을 비롯해 전국 19개소가 응모했다. 평가는 1차 서류심사, 2차 현장심사로 진행됐다. 무궁화 전문가들이 생육환경·규모·접근성·사후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상(전북 완주 무궁화 가로수길), 우수상, 장려상(전남 순천 동천무궁화동산)을 선정했다.

수원 무궁화원은 수형(樹形) 관리, 병충해 방제 등 유지관리를 체계적으로 하고, 무궁화 전문가의 재능기부로 무궁화 해설 프로그램을 운영해 시민들에게 호응을 얻은 점 등이 높이 평가받았다.

무궁화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는 수원시는 2016년 12월부터 고색동에 1만 3233㎡ 규모 수원 무궁화원을 조성·운영하고 있다. 2018년 7월 시민에게 개방했다.

지난해 개발한 '수원시 무궁화' 5개 품종(장롱·효원·수성·수주·홍제) 등 200여 개 무궁화 품종(2만여 주)을 분화·분재·가로수 등 형태로 재배한다. 재배한 무궁화는 무궁화 정원·가로수길 조성에 활용하고 있다.

수원시는 2012년부터 매년 '전국 무궁화 축제' 지역 축제(2016년은 중앙 축제)를 열고, 무궁화 사업을 꾸준히 전개하는 등 무궁화를 적극적으로 홍보·보급하고 있다.

최광열 수원시 공원녹지사업소장은 "나라꽃 무궁화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무궁화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겠다"며 "무궁화 보급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과거의 성공이 성적이였다면

## 미래의 경쟁력은 '열정'입니다.



# 시흥시, 어르신들 늠내 건강학교로 놀러오세요!

### 어르신 위한 생활건강 증진 광장 문 활짝 열어 다목적 가변 공간·사계절 온실 공간 등 갖춰져

시흥시는 18일 어르신 생활건강 증진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된 '늠내 건강학교'의 문을 활짝 열었다. 2018년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공공디자인으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공모 프로젝트로 만들어진 늠내건강학교는 지역 어르신들의 일상성 향상, 인지건강 증진, 소통·교류 활성화를 목표로 △보건소 앞마당 유휴공간 내 부엌과 냉난방 공기조절기능을 갖춘 '다목적 가변공간' △초록의 식물을 만날 수 있는 '사계절 온실공간' △다양한 전시가 진행될 '별별사진관' △매일매일 가벼운 스트레칭과 인지운동, 근력운동 등이 가능한 '순환형 운동시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갑작스레 찾아온 한파와 빗방울로 낯선 날씨에도 이날 200여 명이 넘는 지역 어르신들과 시민들이 개장식을 찾아 늠내건강학교의 새로운

출발을 함께 축하하는 메시지를 전하며, 저마다의 색깔과 특징을 지닌 광장 곳곳을 살펴보고 있다. 특히 이번 개장식의 하이라이트는 어르신들의 온기가 고스란히 담긴 이불의 결면을 하나하나 이어 만든 따뜻한 건강조각보를 제막전으로 활용한 퍼포먼스였다. 이 건강조각보는 지역 어르신 24분의 집에 방문해 오래된 이불과 사용하지 않는 직물을 골라분해해 털어내고, 포근한 새 이불을 선물한 후, 쓰던 이불을 내어 주신 어르신들과 함께 하나씩 바느질로 이어 세상에 단 하나뿐인 제막전으로 만든 것이다. 제막행사 외에도 지난 시범운영 기간동안 열심히 참여하신 어르신들께 '개근상'과 '소통왕상'을 수여, 추억의 교복을 입고 즉석 사진을 찍어 전해드린 청춘사진관, 개장 기념 어르신 제빵교실 등을 통해 행사장을



찾은 어르신들과 시민들께 특색있는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했다. 이번 개장식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그간 특별한 용도 없이 방치되던 유휴공간이 이렇게 풍성하고 알찬 체험이 가능한 공유공간으로 새롭게 만들어졌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반가운 일"이라며 "이웃 어르신들과 함께 새로운 늠내건강학교를 매일매일 찾을 것"이라며 기쁜 마음을 전했다. 시흥/이승배 기자

## '빅데이터와 IoT' 오산시민 생활편의 대폭 높인다



### 가구별 소득, 소비지출·사교육비 맞벌이 비율 등 129개 항목 활용

오산시는 18일 시청 상황실에서 실무부서 부서장 및 담당자 15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오산시 빅데이터 분석 사업' 중간보고회를 개최해 빅데이터 분석사업의 중간보고 및 행정 활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번 사업에는 오산시 전 가구별 소득과 소비지출, 사교육비, 맞벌이 비율 등 129개 항목에 대한 주계 데이터 기반에서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 및 IOT센서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제의 빅데이터 분석을 수행했다. 오산형 돌봄 빅데이터 분석은 초등 돌봄대상 및 돌봄기관 설치 우선 대상을 파악하고 취약한 아동의 국

공급어린이집 설치 위치 선정, 시간 연장반 등 취약 돌봄 확대 기준 마련을 통해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 맞춤형 돌봄 정책 수립에 활용하기 위한 분석 과제이다. IOT센서를 활용한 전통시장 활성화는 IOT센서 데이터와 신용카드 데이터를 활용한 전통시장 상권분석 모형 고도화를 통해 우수·이탈 방문객의 특성을 분석한다. 구역별 선호 특성과 매출과의 관계 분석을 통해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근거와 사후 검증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과제이다. 향후 오산시는 중간보고회 결과 실무부서의 의견을 반영해 사업을 마무리하고 직원들을 대상으로 빅데이터 분석과제 활용방안에 대한 실무적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과상욱 오산시장은 "4차 산업의 핵심인 빅데이터를 활용해 수요자 중심의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정책을 수립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오산/김용범 기자

## 포천 '열/정/대/박'수험생만나리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지난 14일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청소년을 격려하기 위해 '열/정/대/박'수험생 청소년을 만나리 가자아~' 행사를 진행했다. 센터는 동남고 포천고 포일고 송우고 등 수험장소를 방문해 응원 메시지와 홍보물을 전달했다. 센터는 수능 이후 급증하는 위기 청소년들을 조기발견하고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홍보하고 청소년들의 관심과 참여를 촉진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최후남 센터장은 "스트레스와 긴장감으로 피로가 누적된 수험생들에게 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다양한 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청소년들이 프로그램을 적절히 잘 이용해 건강하게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진로 고민의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개인 상담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포천/김영근 기자

## 양주시, 민관협력 주거환경 개선사업 추진

### 저소득 가정에 도배·장판 등 정비 회천1동, 복지사각지대 문제 해결

양주시 회천1동은 최근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고 있는 저소득 가정을 위해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실시했다. 사업 대상가구는 덕정동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정이며 거주 주택이 오래된 무허가 건물인데다 빗물이 지붕에 고여 있는 상태가 지속돼 조금씩 천장이 내려앉고 도배, 장판 등이 썩어진 상태여서 거주자의 위생상태와 건강이 위협받고 있었다. 회천1동 행정복지센터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하나신희 두손모아봉사단'과 '회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연계해 사업비를 투입,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교체, 도배와 장판 교체 등 내·외부 환경을 새롭게 정비했다. 특히 도배와 장판을 교체할 때, 행

정복지센터직원들을 비롯해 하나신희 두손모아봉사단 회원들, 회천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 모두가 함께 장시간에 걸쳐 가구, 가전제품, 생활쓰레기 등을 옮겼고 집안 곳곳을 말끔히 정리해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개선했다. 지원 대상자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되지 않아 환경개선은 염두도 못내고 방치하며 살고 있었다"며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셔서 따뜻하고 쾌적한 환경을 얻게 되어 기쁘다"며 연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도용 회천1동장은 "어려운 이웃의 환경 개선에 가까이 후원해주신 하나신희 두손모아봉사단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며 "앞으로도 민간기관 및 단체들과 적극 협력해 지역사회의 복지사각지대 문제를 해결하고 주민들의 복지체감도 제고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양주/김영근 기자



## 연천군, 전곡리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 개최

연천군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는 22일부터 24일까지 3일간 연천전곡리 유적에서 개최된다. 이번 장터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연천울무축제가 취소되어 어려움을 겪는 농가의 판로 해결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마련됐다. 약 50여 농가 및 단체가 참여해 청정지역인 연천군에서 생산되는 콩, 쌀, 울무를 비롯해 사과, 인삼, 꿀, 참마, 고추, 들깨, 녹두, 팥, 수수 등 각종 농특산물을 생산자 직거래 판매를 통해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0월 25일 ~ 27일까지 열린 1차 직거래 장터에서는 총 6천만 원 이상의 매출을 기록하였으며 농협에서 운영한 울무두부 즉석제조 판매도 큰 호응을 얻었다. 연천/김영근 기자

의 강의에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이 참석해 안성시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홍보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워크숍에 참석한 창조경제과 이춘란 주무관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워크숍을 주최한 안성시 광광원 홍보담당관은 "시공간이 공유되는 협업과 소통의 시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세련된 홍보 기법은 그만큼 많은 시민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돼지열병 등으로 올해 워크숍 참여 인원을 줄이는 등 규모를 최소화 해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교육 평가서를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남서현 기자

## 안성시 공직자 시정홍보 역량강화 워크숍

### 현장 실무 위주의 강연 호응 얻어 세련된 홍보기법으로 시민과 친밀

안성시 공직자 60명이 18일 안성시 LS매리원에서 '홍보역량강화 워크숍'을 가졌다. 워크숍은 경인일보 민웅기 차장의 '보도자료 작성법 강의'에 이어 안성시 사진작가협회 지부장 엄태수 작가의 '보도용 사진 찍기 현장 실습'과 '대통령의 글쓰기'의 저자인 강원국 작가의 '마음을 움직이는 글쓰기 작법'에 대한 수업 등 총 3개의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프로그램은 이론 강의뿐 아니라, 수강생들이 직접 핸드폰을 사용해 촬영하고 이를 피드백 하는 실기 수업도 함께 병행해, 공직자들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홍보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평가이다. 특히, 오후에 진행된 강원국 작가

의 강의에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이 참석해 안성시 차원에서 처음 실시된 홍보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여 줬다. 워크숍에 참석한 창조경제과 이춘란 주무관은 "업무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워크숍을 주최한 안성시 광광원 홍보담당관은 "시공간이 공유되는 협업과 소통의 시대, 홍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며 "세련된 홍보 기법은 그만큼 많은 시민을 더 가깝게 만날 수 있도록 해 줄 것"이라고 말했다. 안성시는 돼지열병 등으로 올해 워크숍 참여 인원을 줄이는 등 규모를 최소화 해 아쉬움이 있지만, 내년에는 교육 평가서를 기반으로 하여 더 많은 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더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성/남서현 기자

## 평택시 '저소득 어르신 한방 힐링문화체험'

### 세교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적극 추진 생활한방 통해 삶의 활력 고취나서

평택시 세교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최근 관내 저소득 소외계층 어르신 21명을 모시고 충북 제천 한방명의원 자연치유센터에서 생활한방 힐링체험을 다녀왔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제적·신체적 자유로 외부활동이 어려운 어르신들에게 행복한 추억을 제공해 삶의 활력을 고취하고자 추진됐다. 한방문화체험은 어르신에게 약선음식을 제공하고 체질 및 심리진단, 한방진료, 자연치유운동체험 등을 통해 생활에 활력을 불어넣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문화체험에 참여한 한 어르신은 "나이도 들고 다리도 아파 여행을 갈 기회가 없었는데 야외활동을 하면서 가을단풍도 보고 즐거웠다"며 "생전 처음 한방체험을 하면서 건강해지는 느낌이 들고 좋았다"고 말했다. 박경숙 민간위원장은 "짧은 시간이지만 어르신들이 회원들과 함께 신명나고 즐겁게 체험에 참여하시는 모습을 보니 가슴 뿌듯하며 앞으로도 홀몸 어르신들을 내 부모님처럼 챙겨 따뜻한 세교동을 만드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평택/이동원 기자

## 경기도 '소비자와 우리돼지 소비촉진' 나섰다

### '소비자 안전축산물 투어 행사' 가져 안성 고삼농협·농산물센터·팜랜드서

경기도는 학교 급식교사, 학부모, 학생과 성남소비자모임 회원들과 함께하는 '우리돼지 소비자 안전축산물 투어 행사'를 지난 16일 안성에 위치한 고삼농협안성마춤푸드센터, 농수산물유통센터, 안성팜랜드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아프리카 돼지열병(ASF)'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돈농가와 양돈산업을 돕기 위해 10월19일부터 대대적인 우리돼지 소비촉진 홍보 추진중의 일환이다. 행사내용은 △(안전성 교육) 한돈 및 G마크 축산물 △시설견학(고삼농협안성마춤푸드센터, 농산물유통센터) △시식(돈까스, 새치, 햄) △체험(치즈만들기 등) 등 직접 체험하는 행사로 구성되었다. 아울러 경기 GTV 방송취재 인 터뷰를 통하여 참여한 소비자들의 만족도가 높았음을 보여주었다. 특히, 앞서 도는 우리돼지 소비의 가시적인 효과를 얻고자 대량 소비처인 학교급식, 도청, 시군, 산하기관 등에서 매주 2회 이상 돼지

고기 메뉴를 확대하였고, 지금까지 개최된 행사와 캠페인은 △한돈 살리기 쿡 행사(11.1.,서울광장) △돼지고기 소비촉진 행사(11.2., 경기도 북부청사)△우리 한돈 사랑 캠페인(11.12.,국회회관) △한돈 소비촉진 한마당(11.14.,경기도청)에서 소비촉진의 현장 목소리를 내었다. 이 밖에도 소비촉진 홍보 동영상 제작하여 우리 돼지고기의 안전성·우수성을 TV, G버스, SNS, 유튜브 등 다양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지속적인 소비확대를 유도할 계획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의 대대적인 우리돼지 소비촉진 홍보 효과로 소비심리가 살아나고 가격이 안정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ASF는 사람에게 무해하며 시중 유통 돼지고기는 철저한 검사를 통해 안전하게 공급되고 있으니, 안심하고 돼지고기를 드세요."라고 당부했다. 한편, 돼지고기 도매가격은 3,846원/kg(11.15일)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과 비교해 26%이상(4,859원/kg, 8.27일 평균가격) 하락했으나, 최저점 가격인 10월25일 3,070원에 비하면 25% 올라간 가격이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I got everything' 카페 이천 2호점 문 열어



### 일하는 장애인·고객 행복 기원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기여

이천시시는 지난 13일 이천 롯데프리미엄 아울렛에서 중증장애인 채용카페 'I got everything' 이천 2호점 개점식을 개최했다. I got everything 카페는 한국장애인개발원의 중증장애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2012년 '꿈엔카페'라는 이름으로 시작되어 2016년 I got everything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I got everything의 의미는 '커피를 만들고 마시는 모두가 즐거움을 소유한다'라는 의미로 일하는 장애인과 고객 모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있다. 2018년 7월, 이천시 신둔면 소재에 있는 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에 I got everything 이천 1호점을 농아인협회 이천시지회에서 개점했으며 이에 힘입어 2호점이 이천프리미엄

롯데아울렛에 개점했다. I got everything 이천 2호점 개점은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이천 롯데프리미엄아울렛의 지원뿐 아니라, 후원자들의 각종 후원과 농아인협회 이천시지회 직원들의 노고를 통해 개점할 수 있었다. 이날 비가 오는 것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엄태준 이천시장과 한국장애인개발원장 사업본부장, 이천 롯데아울렛 점장을 비롯한 많은 내빈들이 참석한 가운데 행사가 치루어졌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I got everything의 상호가 가진 의미는 더 이상 무엇을 바라지 않아도 될 만큼 마음의 넉넉하고 행복해서 내가 만난 모든 사람을 안아줄 수 있을 만큼 마음이 넓다는 깊은 뜻을 가지고 있다"며 "진정한 장애는 신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다는 마음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천/남서현 기자

# 양주시드림스타트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부모' 운영

### 양육효능감 증진, 자녀와 관계증진 나서 마인드 교육·치료놀이 등 활용 '호응' 커

양주시 드림스타트가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학부모와 사례관리사를 대상으로 운영한 부모교육 및 3차 슈퍼비전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부모'가 참가자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다.

회암사지 박물관 교육실에서 지난 8일 15일 그리고 오는 29일까지 총 3회기에 걸쳐 진행되는 이번 교육은 명우임상심리연구소의 전문 강사를 초빙해 '함께 성장하는 행복한 부모'를 주제로 진행한다.

교육 프로그램은 부모들의 양육효능감 증진, 자녀와의 관계증진을 위한 성향 이해, 양육기술의 이해와 적용 및 양육스트레스 관리, 학령기 전후의 아동발달단계에 따른 이해 및

드림스타트 실무자 역량 강화 등을 목표로 운영한다.

주요 내용은 애착의 중요성 이해 및 안정애착을 위한 양육방법 적용, 부모-자녀 간 기질적 성향 차이 이해하고 양육방법에 적용, 자녀의 감정 찾기, 자기 위로 및 감정 정화하기, 긍정적인 미래상 그리기 등의 마인드 교육과 치료놀이, 미술치료를 활용한 만들기 등 교육 내용의 실질적인 접목이 함께 이뤄졌다.

부모교육에 참여한 학부모는 "이번 교육을 통해 나를 돌아보고 자녀의 행동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됐다"며 "행복한 부모가 행복한 아이를 만들고 가정이 화목할 수 있다는



당연한 진리를 다시 한번 깨달은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교육을 계기로 항상 가까운 사이여서 쉽게 깨닫기 힘든 가족의 소중함을 인지하고 유익한 시간을 통해 힐링하며 부모자녀관계

및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양주시 드림스타트에서는 앞으로도 아동과 그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주/김영근 기자

## 고양시, 역사와 문화유산 활용한 100km 행군

육군 보병 제60사단 161연대 180명  
역사문화재 전문위원 동행, 유적지 해설

고양시는 최근 걸쳐 관내에 주둔하고 있는 군부대와 합동으로 역사와 문화유산 해설이 있는 전술훈련을 진행했다 18일 밝혔다.

이번 전술훈련에는 육군 보병 제60사단 161연대 및 사단 지휘부 등 총 180여 명이 참여했다.

고양시에서는 정동일 역사문화재 전문위원이 전술훈련에 동행하면서 북한산, 고양시, 한강일대의 주요 역사와 교훈에 대한 해설이 진행됐으며 북한산과 장릉전 등 100km 구간을 무박 2일로 걷는 행군으로 이어졌다.

이번 전술훈련이 진행된 행주동과 고양동 등은 행주대첩과 북한

산성, 6.25 창릉천 전투, 임진왜란 벽제관 전투, 통일 무장투쟁의 연기우, 이신의 의병장과 관련된 많은 문화유산과 이야기가 남아 있는 지역이다.

특히 1711년에 축성한 북한산성은 조선조 숙종대왕의 북벌의지가 담겨져 있는 호국 정신의 역사적 현장이다.

장병들을 인솔한 변성일 연대장은 "일상적인 행군과 달리 곳곳에서 역사적인 교훈, 지역의 전쟁 역사에 대한 유익한 해설이 있어 더욱 의미 있는 전술훈련이 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동행한 고양시 정동일 위원은 "군 장병 전술훈련의 노곤함을 역사와 문화유산 순경로 달려며 진행한 관, 군이 협력한 뜻깊은 행사였다"고 전했다.

고양/김성태 기자

## 파주시, 소상공인 경영난 극복 위해 상생협력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10억 대출 지원  
창업·경영난 겪고 있는 소상공인 혜택

파주시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인해 다수의 가을 축제와 행사가 취소돼 지역경제가 유례없는 침체를 겪는 상황에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극복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이끌어 내고 있다.

18일 파주시는 대규모 점포인 ㈜신세계사이먼과 협약 체결을 통해 소상공인들을 위한 1억 원의 특례보증 출연금을 이끌어내어 대규모 점포와 지역 내 중소 상인과의 상생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협약과 동시에

담보능력이 없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거나 경영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이 1억 원의 10배수인 10억 원의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게 했다.

또한 시중은행과 2억 원의 협약을 추진 중으로 소상공인들이 생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민간 기업과의 상생협약을 통해 운전자금에 최대한 확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은 관내 사업장을 둔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의 소상공인이며 사업자등록 후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일반인 2천만 원, 청년 2천500만 원이며 운전자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하는 이차보전은 은행

대출 금리 중 일반 2%, 청년 2.5%에 대해 4년동안 지원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1억 원이 증가한 5억 원의 파주시 예산과 민간기업 출연금 3억 원을 합쳐 총 8억 원의 운전자금을 확보해 지원할 계획으로 소상공인들의 안정적인 경제활동을 도울 계획이라고 전했다.

파주시는 특례보증, 이차보전 외에도 지역 내 소상공인을 위한 지역화폐를 6월부터 발행해 11월 현재까지 총 78억 원의 파주페이 발행돼 타 지역으로의 소비 유출 방지와 지역상권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12월 연말 매출 확대를 위해 파주페이 충전 시 10% 할인 행사를 추가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 밖에도 지역경제의 근간인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봉일전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공사, 금촌전통시장 증발냉장장치 설치, 문산자유시장 화장실 개보수 등 전통시장 시설 개선 사업과 금촌통일시장 문화난장, 문산자유시장 야시장 개최 등 문화공연 행사를 통해 전통시장 및 시장 주변 소상공인들의 매출 증대 기여에 온 힘을 쏟고 있다.

최문환 파주시장은 "파주시는 그동안 어려운 경제 여건으로 힘들어하는 소상공인들에게 미력하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정책을 펴기 위해 노력했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파주/김성태 기자

## 안성미래발전에 대한 고민 나눈다

안성시는 최근 안성시청 2층 회의실에서 '안성미래 발전을 위한 관학협력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한경대학교 임태희 총장을 비롯해 기획, 대외협력, 산학협력단장이 참석했고, 안성시에서는 안성시장 권한대행 최문환 부시장과 간부공무원이 참석해 안성 미래발전

에 대한 고민을 나눴다.

간담회에서는 안성시가 인구정체와 인구구조의 노령화, 국책사업 등에 소외되는 등 어려운 여건 속에 있다는 것에 대해 공감한다.

앞으로 안성의 먹거리를 고민하고 있으며 발전의 방향성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하다는 뜻을 모았다.

임태희 한경대학교 총장은 안성 발전을 위해 농업, 바이오, 문화분야의 발전방향을 제안하면서 한경대학교가 지역발전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협력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역시 다음 간담회에서는 보다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자고 화답했다.

이날 간담회는 예정된 시간을 넘기면서 많은 축사생세, 미세먼지 등의 안성발전을 위한 선결과제들에 대해서도 많은 의견들이 제시됐다.

최문환 안성시장 권한대행 부시장은 "앞으로 한경대학교와 함께 협력해 안성 발전을 위한 중장기계획들을 계획하고 추진해 가겠다"고 전했다.

안성/남시현 기자

## 성남-공사장 5곳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

신흥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등  
대형 공사하는 기업과 체결

성남시 수정구는 19일 관내 대형공사장 5곳과 수정구청 소회의실에서 '미세먼지 공동대응 협약'을 체결하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협력에 나선다.

협약에 참여하는 5개의 공사장은 지에스건설 2곳, ㈜대우건설 1곳, ㈜한진중공업 1곳, ㈜한화건설 1곳이다.

참여 공사장은 신흥2구역 재개발

정비사업 등 수정구에서 대형공사를 하고 있는 기업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협약을 이행한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사장 인근 도로 살수차 확대운영, 비산먼지 다량 발생작업중지 또는 시간 조정, 직원 차량2부제자율참여, 사업장 비산먼지 억제조치 강화 등이다.

수정구에서는 공사장들이 협약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미세먼지를 낮추는 모범적인 사례를 공유하고 행정적 기술지원을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성남/남시현 기자

## 의정부시 송산2동 절임배추 직거래장터 운영

의정부시 송산2동 주민자치위원회는 김장철을 맞이하여 최근 자매결연지 문광면 절임배추 직거래장터를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송산2동과 자매결연지인 충북 괴산군 문광면에서는 매년 청정 압반수로 씻은 뒤 국산 천일염으로 절여 만든 식감이 뛰어난 절임배추를 시중가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하고 있다.

올해 판매 가격은 2016년부터 4년째 동결된 가격인 3만 원으로 결정됐다.

이번 직거래 장터 결과, 지난 10월 30일부터 11월 11일까지 사전 접수를 통해 425상자, 1,28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

움을 주었다.

김전수 문광면장은 "지속적으로 우리 면의 농산물을 믿고 많은 성원을 보내 주시는 송산2동 주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생산·관리를 소비자들에게 만족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홍정길 송산권역국장은 "직거래장터는 주민들에게는 믿고 먹을 수 있는 산지의 먹거리를 제공하고 도농간 교류를 통해 농촌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직거래 장터 운영을 통해 자매도시와의 우의를 도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횡단보도 안전보행 3원칙

# 서다 보다 걷다

## 꼭 기억하세요!

**서다** 신호를 기다릴 땐 **한발 뒤로 물러섭니다**

**보다** 신호가 바뀌면 **좌우를 살펴봅니다**

**걷다** 횡단보도는 **뛰지 않고 천천히 건넵니다**

# 경북도 2019년 스타 사회적기업 3곳 선정 시상

## 사회적기업의 성장모델 제시, 우수사례 전파 창업자들에게 선배기업 멘토-멘티 역할 수행

경북도는 최근 경북 테크노파크에서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경북의 사회적 기업으로 우수 모델이 될 수 있는 스타 사회적기업 3곳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스타 사회적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구미의 ㈜선산행복일터, 경산의 코어피앤씨(주), 의성의 ㈜제월아트체험센터이다.

9월 23일부터 10월 11일(20일)간 공개 모집하여 사회적기업 21개 업체가 신청했으며, 기업의 사회적가치지표(SVI), 취약계층고용비율, 지속가능성, 사회공헌실적, 사회적기업가 정신, 매출액 등 다양한 선정 기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됐다.

시상은 오는 12월 11일 사회적경제대회시 표창을 수여하고, 사업개발비 각 700만 원과 현판제작, 기업 홍보영상 등 경북도 사회적기업의 성공 우수 모델로 전파 할 계획이다.

이번에 스타 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구미의 ㈜선산행복일터는 2015년에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 기존 세탁소 또는 세탁공장에서 필요한

세탁과정별 기능훈련을 실시하여 세탁업계의 장애인 고용 요구에 대해서 대응하며, 장애인 각자의 능력에 맞는 전문기능을 숙달하여 세탁 현장에서 재취업을 지원함으로써 발달 장애인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풍요로운 삶에 기여하고 있다.

전체 근로자 11명 중 취약계층 6명(장애인 6)을 계속 고용하고 있으며, 사회적기업의 역할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경산의 코어피앤씨(주)는 2015년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 화장지, 티슈 등 천연무기화합물을 활용한 생활용품 생산·유통하는 업체로서 전체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하여 정년이 없는 일자리 제공과 지체장애인 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사내 작업장 설치 및 일감을 제공하는 등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기술력 또한 인정받아 경쟁력 있는 사회적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다.

현재 전체 근로자 16명 중 취약계층 7명(장애인 1, 고령자 6)을 고용하고 있다.



의성의 ㈜제월아트체험센터는 2015년 인증된 사회적기업으로 도예작품 제작판매, 체험학습, 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업체로서 지역민과의 소통 및 문화·예술이 가깝게 느껴질 수 있도록 이해와 공감을 키우는 공간을 운영하며 문화예술 향유 계층 확대를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문화예술교육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지역 역사와 문화, 자연자원을

연계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타지역 관광객 유입 및 관광상품 개발과 판매로 지역사회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문화·예술분야 공헌에 선두적인 역할을 하는 사회적기업이다.

매년 경북도에서는 스타 사회적기업을 지정하여 초기 사회적기업으로 진입하고자 하는 창업자들에게 선배기업의 노하우, 멘토링 전수 등 멘토-멘티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북도,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 나서

### 한국도로공사와 장애인용 업무 협약 경제적 부담 경감위한 실무협력 강화

경북도는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와 최근 도청 회의실에서 '장애인용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무상 보급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협약식에는 김재광 복지건강국장과 김진광 한국도로공사 대구경북본부장이 참석해 장애인의 자가용 이용을 활성화하여 이동편의 증진과 단말기 비용 전액을 지원하여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실무협력을 약속

했다. 협약의 주요내용은 △ 장애인용 감면단말기 1,000여대 지원 △ 단말기 구입 비용부담(1대당 95,000원 중 경북도 3만1,000원, 도로공사 6만4,000원) △ 단말기 발급 신청이 용이하도록 영업소를 활용한 고객 편의도모 △ 보급효과 극대화 위한 홍보 추진 등이다.

김재광 경북도 복지건강국장은 "장애인용 감면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도로공사와 힘을 합쳐 도내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앞으로 지원규모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경북도, 순국선열의 독립·희생정신 기려

### 독립운동기념관서 순국선열의 날 몸짓 주제로 기념공연과 만세삼창

경북도는 지난 17일 오전 경북도독립운동기념관(2017. 6. 30. 개관) 왕산관(대강당)에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항거하다 순국하신 선열의 숭고한 독립정신과 희생정신을 기리기 위해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거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윤종진 경북도 행정부지사, 임종식 경북도 교육감, 배선두 애국지사, 이동일 광복회 경북지부장을 비롯한 도 및 안동시의 보존단체장과 기관·단체장, 유족, 학생 등 400여 명이 참석해 가운데 독립운동기념관 내 추모벽 참배 후 순국선열에 대한 몸짓을 주제로 기념공연이 열렸고, 국민의례,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포상 전수, 기념사에 이어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만세삼창으로 진행됐다.

특히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3·1운동 관련 유공으로 고고 건주(구미) 선생이 독립유공자로 서훈되어, 이번 기념식에 선생의 외손인 김진영(90세)님에게 윤종진 행정부지사가 대통령 표창과 훈장을 전수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기념사(윤종진 행정부지사 대독)를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은 가장 어려운 순간, 애국선열들이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하면서, "경북도는 도민과 함께 우리의 과거 역사를 기억하고,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국가유공자를 정성으로 예우하며, 그들이 더욱 존경받는 경북도가 되도록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민족의 자주독립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에게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경북도/정승초 기자

## 구미시 식량산업 육성 목표 및 전략 수립



### 식량작물 품목에 대한 특성 생산·유통 여건을 검토 분석

구미시는 최근 선산출장소 4층 회의실에서 시장, 시의원, 농협조합장, 농업인 단체장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구미시식량산업종합계획(5개년) 발전협의회 및 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연구용역은 지난해 농식품부에서 수립한 시·군단위 식량산업종합계획에 의거 지역 내 쌀을 포함한 식량작물 품목에 대한 특성과 생산·유통 여건을 검토·분석하고, 비생산 조정 및 전략품목 선정·육성, 시설운영 효율화 계획 수립 등 구미시 식량산업 발전 전략을 마련하는 것으로, 금일 개최된 발전협의회는 위원장인

구미시장을 중심으로 시의원, 관계 공무원, 농협 및 식량작물 생산·유통 조직 대표 등으로 구성 되었으며, 지역실정에 맞는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에 따른 참여, 자문, 심의 등 식량산업 분야 전반에 걸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구미시 식량산업종합계획 수립을 통하여 도·농통합도시 구미 농업의 중심지 역할을 설정하는 계기로 삼고 구미시 식량산업 발전협의회를 중심으로 구미 농업의 가장 핵심 분야인 식량산업 발전에 선도적인 큰 역할을 당부 드리며, 구미시 식량산업의 경쟁력 제고와 활성화를 위해 많은 지혜와 적극적인 관심으로 도와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 하였다.

구미/정승초 기자

## 안동시,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회의 개최

### 내년 사업 효율적 운영 방안 논의

안동시는 지난 15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2019년 지역아동센터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지역아동센터 및 드림스타트 사업 성과와 2020년 주요 사업에 대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는 지역 아동의 복지증진을 위해 사업의 계획 수립부터 행정·재정적 지원 등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자문역

할을 수행하고 있다.

이날 참석한 위원들은 2019년 사업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주요 사업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아동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아동센터와 드림스타트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 중요하다."며, "방과 후 돌봄 아동들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위원들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

안동/정승초 기자

## 세계유교문화 중심 '안동-산동' 문화교류 확대

### 문화관광 교류 실질적 협력사업 논의 중 관광객 유치 등 현안도 성과 나타나

한국과 중국 간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안동시가 유교를 매개로 중국 산동성과 문화교류를 확대하는 등 다양한 협력관계를 펼쳐 앞으로의 행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권영세 안동시장을 대표로 한 안동시 방문단은 산동사회과학원의 초청으로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4일 간의 일정으로 중국 산동성의 여러 기관을 방문해 문화교류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먼저, 안동시 방문단은 산동성의 썬크랭크인 산동사회과학원과 산동성 도서관 산동서원을 방문해 산동성 관계자들과 상호교류방안을 협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문단은 2020년 8월에 개최되는 21세기인문가치포럼에 산동성 관계자들이 참석해 줄 것을 요청했다. 산동성 관계자들은 방문단을 환대하며, 포럼 참가를 적극 권

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산동성에서 개최되는 니산포럼에 안동시의 참석을 요청하며 교류를 이어가기를 희망했다.

아울러, 안동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한 3대문화권사업이 준공되는 2021년에 중국 니산포럼을 안동에서 개최하는 방안과 산동성 관광객의 안동 유치, 2022년 한·중 협력수교 30주년 행사 개최 등에 대해서도 깊은 대화가 오갔다.

양 도시는 협의내용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지속적인 협력을 위해 빠른 시일 내 협약서를 작성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어 방문단은 우호협력도시인 산동성의 곡부시를 방문해 두 도시 간의 더욱 굳건한 교류 협력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제남시에서는 중국 산동성 내 대산여유구획설계위원장으로 재직하며, 안동과 중국 교류의 가교 역할을 해온 상덕군 원장을 안동홍보대사로 위촉했다. 대산여유구획설계원은 산동성 정부와 협력해 여행상품을 만드는 곳이다.

산동성 관광 분야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고 있는 상덕군 원장을 홍보대사로 위촉함으로써 앞으로의 중국관광객 유치뿐만 아니라 안동의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을 현지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효과를 동시에 가져왔다는 평가다.

중국 산동성 인구는 1억 명으로 인구가 많은 중국에서도 대성(大省)으로 꼽힌다. 중국의 대표적인 사상가 공자를 비롯해, 맹자, 손자, 왕희지 등 역사적 인물도 많이 배출한 문향의 도시이다.

권영세 안동시장은 "공자 탄생지인 중국 산동성 니산과 퇴계 이황 선생의 탄생지인 안동 도산은 유교를 중심으로 공동점이 많다."며, "3대문화권사업으로 건립되는 세계유교선비문화공원과 한국문화테마파크 준공에 맞춰 중국과 실질적인 문화·관광 교류 협의를 통해 중국 관광객들이 안동을 쉽게 찾을 수 있게 하고 아울러 2021년 중국 니산포럼을 안동 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안동/정승초 기자

## 안동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안동시는 토지 소유자간의 불필요한 토지분쟁을 해소하고 국민의 재산권 보호와 효율적인 국토관리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현황과 불일치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훼손·변형된 종이지적도면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국가사업이다.

임하면 금소리 430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소1지구'와 금곡동 3-27번지 일원에 위치한 '금곡1지구'는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토지소유자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로 지정 고시된 지역이다.

올해 11월부터 지적기준점 설치, 필지별 토지현황조사, 지적측량 등을 시작으로 토지소유자와 협의의를 통한 경계확정, 조정금 산정, 지적공부 작성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2020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번 지적재조사 사업은 지적경계선에 저축된 건축물, 토지의 경계분쟁, 맹지 해소 등 토지 정형화를 통한 토지이용가치 상승과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안동/정승초 기자

## 안동시, 배움의 감동이 있는 여성대학 개강

### 도산·녹전면 120명 대상 교육 시작 실습 위주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안동시평생학습관은 겨울철 농한기를 맞아 도산면과 녹전면 지역 농촌 여성 각 60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여성대학의 문을 연다.

개강식은 18일과 19일 도산면과 녹전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각각 개최된다.

이번 교육은 농촌 지역의 일손 부족 등으로 교육의 기회를 얻지 못하는 읍면지역 여성들을 대상으로 오는 12월 20일까지 총 10회 과정으로 진행된다.

신나는 노래 교실, 문화·교양 강좌, 건강강좌, 공예품 만들기, 커피부루잉, 케이크 만들기, 요가, 라인댄스 등 교육생들에게 삶의 활력을 줄 수

있는 실습 위주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이다.

평생학습관은 바쁜 영농활동으로 지치고 힘든 농촌 여성들에게 찾아가는 여성대학을 운영함으로써, 여가선용을 도모하고 여성의 역량 강화와 자기 개발 배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1999년 교육을 시작해 현재까지 3,371명의 수료생을 배출했으며, 뜨거운 호응으로 매년 상·하반기로 4개 면을 선정해 운영하고 있다.

김승동 평생교육과장은 "평생교육의 기회가 적은 농촌 여성들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여성대학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해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동/정승초 기자



## 꿀벌 단계별 사양 관리, 궁금하지 않으세요?



### 안동시농업기술센터, 벌 단계별 사양 관리기르는 방법 등 기술 교육 시행

안동시농업기술센터는 1지역 양봉농가 100명을 대상으로 꿀벌 일령에 따른 사양 관리 방법과 벌 기르는 방법에 대해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꿀벌은 여왕벌, 일벌, 수벌로 이루어지며, 개체별 역할과 특성을 이해해야 고품질 꿀벌 생산에 성공할 수 있다. 일벌의 경우 3일~18일 사이 내역벌(내역蜂)로 새끼 기르기, 청소, 꿀 생산 등 주로 벌통 안에서 일을 하고, 18일 이후 외역벌(외역蜂)로 꿀 모으기, 집 지키기, 프로폴리스 모으기 등 주로 벌통 밖 일에 전념한다.

월동 시 전기 가온의 경우 비닐, 형

광, 보온덮개, 꽃가루 떡을 준비하고, 온도는 월동 1℃, 벌 깨운 후 4℃, 이후 3일에 2℃씩 올려 내부온도 25~27℃까지 맞춰주면 된다. 벌을 깨울 땀 해가 났을 때 보온 덮개를 개방해주고, 해가 지게 되면 보온덮개를 다시 단아춤으로 햇빛에 의한 자극으로 깨워주면 된다. 이외에 양봉 농가에서 매일 걱정하는 분봉 방지 방법과 개미산 처리법 등을 교육했다.

안동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아직까지 오래된 방식으로 벌을 사육하는 농가가 많다. 기후가 조금씩 변하기 때문에 꿀벌 사양 방식도 기후 특성에 맞게 따라가야 한다."며, "앞으로 최신 사양기술 보급은 물론 양봉 농가가 다양한 양봉산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동/정승초 기자

# 경남도, 행복 소·화제 마시고, 다문화남편들 나섰다

### 창원컨벤션센터서 소통남편 화통아빠 가족제일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 활성화 연수회' 개최



경남도가 지난 17일 창원컨벤션센터에서 '다문화가족 남편서포터즈 활성화 연수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회는 그동안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 활동성과를 공유하고 구성원 간의 화합과 지역간 교류를 통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연수회에는 도내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로 활동하고 있는 6개 지역(창원·진주·통영·거제·양산·하동)의 남편 서포터즈 100여 명이 참석했다. '다문화가족 남편 서포터즈'는 결

혼이주여성과 살아가면서 생기는 다양한 문제를 남편들이 스스로 모임을 결성하고, 정보교류 등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등 문제해결 역량을 강화하고자 2016년 처음 결성되어 올해 4년째 운영되고 있다.

연수회는 개회식을 시작으로 6개 지역의 남편 서포터즈 활동 성과 발표와 남편역량강화 특강으로 이어졌다. 이후에는 'Team Building(팀빌딩)'을 통해 지역 간 자조모임 활성화와 회원 간 커뮤니케이션 향상을 도모하는 시간도 가졌다.

성과발표 시간에는 다문화가족 교육, 자원봉사 활동, 가족이 함께 떠나는 문화여행, 지역 봉사활동 등 1년간의 남편 서포터즈의 다양한 활동이 소개됐다.

특히 양산에서는 <다양성>이라는 주제로 남편들이 직접 아내 나라 음식을 요리하는 등 음식문화를 체험하고, 스토리를 담아 음식을 소개해 많은 박수를 받았고, 진주에서는 푸드재료를 활용한 집담 상담을 4회에 걸쳐 진행하면서 남편들이 느끼는 어려움을 진솔하게 듣고 함께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과정을 소개했다.

이어 통영에서는 신규 서포터즈를 영입해 선배 남편이 들려주는 경험

담을 토대로 후배 남편이 가정생활을 원만히 잘할 수 있도록 멘토-멘티 역할을 수행한 사례와 지역사회 봉사활동 사례를 소개하면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참여하게 되어 자긍심이 고취됐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날 참석한 다문화가족 남편들은 "남편 서포터즈 활동을 통해 아내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자녀들의 건강한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교육은 물론, 문화탐방 프로그램에도 참여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인식하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원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해 훈훈한 분위기를 이어갔다.

한미영 경남도 여성가족정책관은 "오프라인 모임뿐만 아니라 소셜네트워킹시스템(SNS) 등을 통한 온라인 소통 활성화 방안 모색으로 남편 서포터즈 활동을 확대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하며, "내년에는 다문화 가족들이 안착하고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신규사업으로 글로벌 리더아카데미(4개과정)를 개설하여 교육이 취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많은 관심을 가지고 다문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경남도,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 개최

### 독립유공자 유족 보존단체 대표 등 300여 명 참석... 새로운 미래 다짐

경남도가 지난 17일 경남보훈회관에서 '제80회 순국선열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올해 기념식은 독립유공자 유족, 각계 보존단체 대표, 도민, 학생 등 3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 약사보고, 독립유공자 포상, 기념사, 순국선열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이번 순국선열의 날을 계기로 독립유공자 서훈을 받은 두 분의 유족에게는 건국훈장 애족장과 대통령표창을 전수했다.

건국훈장 애족장을 받으신 고(故) 김수도 선생은 1933년 일본

오사카에서 항일선전문을 배포하다 체포됐고, 대통령표창을 받으신 고(故) 김창환 선생은 1930년 제주도에서 항일전단을 살포하다 체포되어 옥고를 치렀다.

이삼희 경남도 행정국장은 기념사를 통해 "평화와 번영의 한반도,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물려주는 일이라 말로 선열들의 고귀한 유지를 받드는 길"이라며, "과거의 역사를 기억하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이 정당한 보상과 합당한 예우를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도내 중고등학생들도 참석해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며 보다 나은 미래를 다짐하는 계기가 됐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부산시, 도시형 스마트팜 연계 사회적경제

### 전국 최초 냉동컨테이너 활용 구축 운영 사회적경제 혁신성장 비즈니스모델 확산

부산시(시장 오거돈)는 작년 12월 전국 최초로 연제구 화신사이버대학교 부지 내 냉동컨테이너를 활용, 도시형 스마트팜을 구축했다. 현재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표고버섯을 재배·판매하고 있으며, 표고버섯 가루를 활용한 머핀·쿠키 레시피 및 친환경 샐러드·화장품 등 파생상품 개발에도 적극 노력하고 있다.

2018년 산업통상자원부 '커뮤니티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사업' 중 하나인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은 (재)부산테크노파크와 신라대학교 산학협력단의 기술화·사업화 지원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지속성장 가능한 모델을 구축하고, 이를 부산시 전역으로 확산하는 것을 최종 목표로 추진되어 왔다.

이번 사업은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위한 부산시의 정책의지를 기반으로, 연제구 소재 학교법인 화신

학원의 부지 무상제공, 한국예탁결제원 스마트팜 플랫폼(2대) 기부 등 민·관·학의 적극적인 협업을 바탕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해 △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발굴(경제선상의 장애인의 교육 및 활동을 지원하는 '협동조합 매일매일즐거워') △ 부산경상대 관련학과 개설(스마트팜 도시농업과) △ 제2단계 스마트팜 구축(화신사이버대학교 부지 내, '19년 12월 18일 개소식) △ 도시재생 연계 스마트팜 플랫폼 확산(천마마을 등)과 같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배병철 민생노동정책관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육성 및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일시적 지원보다는 사회적경제기업의 성장성 제고(Scale-up)를 위한 기술개발·사업화 지원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도시형 스마트팜 사업을 통해 사회적경제 혁신성장을 선도할 수 있는 성공적인 비즈니스모델로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부산/최만식 기자

## 의령군 특산물 박람회 참가



의령군은 정보화마을에서 생산된 우수 농·특산물의 홍보와 판로개척을 위해 지난 14일부터 17일까지 진행되는 2019 경남 특산물 박람회에 참가했다고 18일 밝혔다.

창원컨벤션센터 전시장에서 열린 이번 행사에 의령군에서는 덕실대봉·보천과채 정보화마을이 참가했으며 지역에서 생산한 우수 농·특산물을 홍보 및 시식체험하고 시중보다 저렴한 가격에 판매했다.

특히 갯 수확하기 시작한 덕실대봉정보화마을의 대봉감과 보천과채정보화마을의 파프리카, 예호박 등 신선하고 우수한 품질의 농산물을 직접 보고 시식해 방문객들에게 많은 인기를 끌었다.

의령/최만식 기자

## 울겨울 부산은 화려한 빛의 바다로 물든다

### '빛' 주제로 다채로운 사랑과 평화담아 특색 있는 트리축제 지역경제 활성화

부산시는 11월 중순부터 내년 1월 말까지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부산 개최를 기념하여 중구, 부산진구, 해운대구 일원에서 사랑과 평화를 주제로 '트리축제'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내년 1월 5일까지 중구 광복로 일원에서는 '부산시민트리축제'가 개최된다. 올해 11회를 맞는 광복동 트리축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를 기념하고 축하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 예년보다 보름 정도 앞당겨 52일간 개최된다.

'축복의 부산, 아세안과 함께'를 주제로 아세안 국가의 국기를 10개의 트리와 함께 꾸민 <축복의 트리 숲>, 광복로 일원의 <한-아세안 대형번선 포토존>, 대청로 일원의 <한-아세안 기념거리> 등 곳곳에 이벤트 구간을 조성했다.

개막식은 11월 30일 오후 5시 30분 광복로 메인무대에서 열리며 개막선언, 점등 세레모니에 이어 축하공연 등이 펼쳐진다. 올해 처음 부산

진주 전포카페거리, 젊음의 거리 등 일원에서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개최 기념 특별 이벤트로 '서면 트리축제'가 개최된다. 'Be Moved : 변화와 감동'의 주제로 맞춰 3가지 테마로 구성되며, 11월 15일부터 11월 29일까지 '한-아세안의 빛'을 테마로 아세안 국가의 국기 및 상징색, 언어 등을 활용한 다양한 볼거리가 조성된다. 주말에는 참가국의 전통 의상을 착용한 서포터즈의 타악 퍼포먼스 퍼레이드 공연을 진행하고 참가국 다문화 가정을 초청한 가운데 공연도 펼쳐진다.

11월 30일부터 12월 13일까지는 '부산의 빛'을 테마로 부산의 대표적인 도시 야경을 만나볼 수 있고, 특히 부산시민이 직접 만드는 거리 버스킹 공연과 부산 출신 인디밴드 콘서트, 빛 조형물 제작 체험 공방 등 다양한 시민참여형 프로그램도 마련될 예정이다.

12월 14일부터 2020년 1월 5일까지는 '메리크리스마스 앤 해피뉴이어(Merry Christmas & Happy New Year)'를 테마로 소망트리 만들기, 크리스마스 러블리 콘서트, 새해 카운트다운 파티 등 다채로운 볼

거리를 제공한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열리는 해운대구에서는 11월 16일부터 내년 1월 27일까지 '해운대, 빛의 바다'를 주제로 해운대 구남로 일대에서 '제6회 해운대 빛 축제'가 열린다.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환영 분위기 조성을 위해 축제를 예년보다 15일 정도 앞당긴 11월 16일부터 시작하고 부산을 대표하는 해운대해수욕장 호안도로에 빛 축제와 연계한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이동경로 경관조명'도 설치했다.

축제 구간도 해운대광장, 해운대시장, 해운대 온천길 등 기존의 축제공간을 넘어 해운대해수욕장까지 확대하고 백사장 위에 '은하수 빛 조형물'과 포토존을 설치하여 방문객들에게 잊지 못할 추억을 선사할 예정이다.

메인무대인 구남로 해운대광장은 '크리스마스 빛 마을'로 꾸미고 '전국 캐럴 경연대회', '산타클로스 100명 출정식'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개최한다. 지역 상인들이 참여하여 축제 기간 산타 복장으로 입장하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주는 '산타데이'도 운영한다.

부산/최만식 기자

세계문화유산의 도시  
**천년왕도**  
**경주**

양동마을

산성지구

월성지구

황룡사지구

남산지구

대령원지구

## 소통하는 의정, 시민중심의 의회

"경주시의회는 항상 열려 있습니다."

경주시의회  
http://gicouncil.or.kr

불국사

석굴암

# 영광군, 대한민국 대표 과일을 꿈꾸는 사과대추

### 대표하는 임산물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 기울여 현장 전문가 초청 토양관리와 전정 교육 실시해

영광군은 최근 근내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 및 관심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사과대추 토양 관리 및 전정 기술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한 토양관리와 전정 교육은 지난 9월 4일 한반도농원 최덕현 대표를 초청해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산물 비배관리 및 병해충 방제, 임산물 가공 방법 및 마케팅 전략 기술 교육에 이어진 교육이다.

9월 4일에 실시된 교육에 참석한 작목반 회원들은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아서 먹먹했던 가슴이 뻥 뚫린 것처럼 시원한 교육이었다”고 호평을 해 이번 교육까지 이어졌다.

이날 강사로 초청된 한반도농원 최덕현 대표는 현장에서 대추나무 전정·수형 만들기 등 기술 전수와 함께 직접 전정할 수 있도록 지도해줬으며 에코바이오텍 김세호 대표는 토양 검사 및 토양 관리에 관한 기술을 전수해 주는 등 농가들에 유익한

교육을 해줬다.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들은 “그동안 토양과 수형에 관해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알지 못해 전문적인 지식 없이 재배를 해왔는데 전문가에게 현장에서 직접 교육을 받으니까 토양에 대한 이해와 나무의 수형에 대해 알게 됐다”며 “이를 활용해 우수한 사과대추를 생산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영광군 사과대추 작목반 회원들은 전문적인 교육을 받으며 우수한 사과대추를 생산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28농가 7만8,896㎡에 재배를 하고 있다.

또한 지난 10월 11일 장흥에서 열린 산림문화 박람회에서도 큰 호평을 받았으며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주최하는 2019년 대한민국 대표 과일 선발대회에 출품한 경력도 있다.

이렇듯 영광군은 사과대추를 영광군을 대표하는 임산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과대추 재배환경과 알맞은 토양 관리 등 교육을 통해 선도적인 임업인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임업인들에게 필요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 무안군 ‘키 쭉쭉 살 쭉쭉 건강만점교실’

### 재밌는 놀이 응용한 신체활동 통해 순발력·체력 키우는 프로그램 인기

무안군은 지난 9월부터 건강관리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키 쭉쭉 살 쭉쭉 재밌는 건강만점교실’을 운영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키 쭉쭉 살 쭉쭉 재밌는 건강만점교실’은 보건소 운동 지도사, 영양사, 건강매니저와 스포츠 스태프 강사진으로 구성돼 재밌는 놀이를 응용한 신체활동을 통해 순발력과 체력을 키우는 프로그램으로 초등학생들에게 큰 인기를

얻고 있다.

또한,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표현한 식품구성 자전거 모형을 이용해 규칙적인 신체활동과 균형잡힌 영양소 섭취에 따른 비만 예방을 할 수 있도록 이론과 영양 실습으로 올바른 식생활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신체활동에 흥미를 가지도록 건강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해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안/조기석 기자

## 구례군, 지리산정원조성사업 본격 추진 나서

### ‘지리산을 품은 정원’ 의견 수렴 기본·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 가져

구례군은 군청 상황실에서 자문위원 및 부서장 등 2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리산정원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중간보고회를 가졌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보고회는 그동안 현지답사 및 검토된 결과를 토대로 지리산정원 조성 기본 컨셉 설정으로 지리산의 자연과 구례의 문화를 품은 5개의 주제정원과 1개의 숲길을 조성하고자 ‘지리산을 품은 정원’으로 주제를 정했다.

‘5 GARDEN’은 구례의 드넓은 하늘을 품은 하늘정원, 밤하늘 별빛을 수 놓는다 해 별빛숲정원, 군민화합의 상징인 어울림정원, 오랜시간의

기억을 되살리고자 와이드정원, 나만의 공간과 자연을 가지고 싶어하는 프라이빗정원으로 주제를 설정하고 ‘1 FOREST ROAD’는 지리산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는 지리산숲길 조성에 대한 기본계획으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군은 이번 보고회에서 제안된 의견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며 앞으로 미래전략연구단, SNS홍보단 등 더욱더 다양한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3월에 지리산정원 조성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할 예정이다.

김순호 군수는 “우리군 전체의 자연을 이용한 지리산정원이 전국 최초의 숲정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 수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구례/이용만 기자

## 가을철 산불 제로에 도전하는 영광군

### 산불전문예방진화대 맞춤형 교육 이론교육 현장실습 교육 등 진행

영광군은 가을철 산불조심 기간을 맞아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하고자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대상으로 산불방지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남지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청해 오전에는 이론교육, 오후에는 산불진화 현장실습 교육 등으로 진행됐다.

오전 이론교육에서는 산림 현황 및 중요성, 산불 예방 계도 단속 요령, 산불 발생 원인 및 산불 신고요령, 무전기 및 단말기 사용요령 등으로 이뤄져 다시 한 번 산불예방의 중요성을 일깨워줬다.

오후에는 본격적으로 야외에 나가 산불진화방법과 기계화 시스템 진화선 구축 등 강도 높은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했다. 도르레, 수조 등을 설치해 진화 장비를 직접 구축해보는 등 실제 상황에 맞추어 긴장감 넘치는 훈련을 실시했다.

한편 영광군은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에 산불종합대책본부를 운영 중에 있으며 산불전문예방진화대 52명을 선발해 산불발생 취약지 순찰활동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영광군 관계자는 “지속적인 산불 예방교육을 통해 실제 상황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2019년 산불 제로화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영광/김영만 기자

##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추진

###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 개최해 일자리 창출 지역특화산업 활성화 육성



영광군은 최근 군청 2층 소회의실에서 강영구 부군수,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 회의 및 기본계획 수립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8일 밝혔다.

영광찰보리 신활력플러스사업은 잘 보리 6차산업 및 향토산업으로 축적된 자산과 민간조직을 고도화해 혁신

주제 육성, 일자리 창출과 지역특화산업 활성화로 지역순환경제를 구축해 ‘자립적 지역발전 기반’마련을 목적으로 2019~2022년까지 4년 동안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70억원이다.

행사 1부 추진위원회 회의에서는 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 추진체계 구성 및 운영규정 승인, 2019년도 사업계획 승인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어 2부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는 용역사로부터 착수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으며 타 지역과 차별화되고 지역 특성에 맞는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용역에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는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군 관계자는 “본 사업으로 영광찰보리 산업의 고도화 및 자립적 지역발전 조직체 육성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영광/김영만 기자

## 장흥군새마을회, 알뜰도서관 무료교환전 운영

### 군민 대상 읽지 않는 책 2권 새 책 1권 교환해 주는 행사

장흥군새마을회는 지난 15일 새마을문고장흥군지부(회장 백중수) 회원 20여명과 함께 군민회관 앞 광장에서 ‘책 읽는 어린이, 행복한 가정! 2019 알뜰도서관 무료교환전’을 운영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알뜰도서관 무료 교환전은 군민들을 대상으로 읽지 않는 책 2권을 새 책 1권으로 교환해주는 행사다.

책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독서

인구 저변 확대와 독서 문화 정착을 위해 실시됐다.

이날 행사를 통해서 성인도서, 아동도서를 포함한 450여권의 도서가 교환됐다.

백중수새마을문고 회장은 “도서교환전 통해 책장에서 잠자고 있는 좋은 책을 서로 나누고 교환하여 이웃간의 정을 다지고 주민이 독서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새마을문고장흥군지부의 알뜰도서관은 매년 실시되고 있으며, 해를 거듭할수록 지역 주민의 관심이 늘고 있다. 장흥/김장길 기자

## 순천시, ‘한국시의 원형성을 찾아서’ 강연

### 열한 번째 시민인문학 강의 열려 홍용희 교수를 초청해 강좌 개최

2019년 11월 시민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이 오는 21일 저녁 7시 연향도서관 극장에서 홍용희 교수를 초청해 강연을 연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강좌는 ‘한국시의 원형성을 찾아서’를 주제로 강의가 진행된다. 강의는 한국시의 중심을 찾아보며 그 원형성을 생각해 보는 유익한 시간이 될 것이다.

홍용희 교수는 계간 한국문학평론

편집위원과 한국시학회 총무이사를 역임하고 제1회 젊은평론가상, 제13회 평론문학상 등을 수상하면서 널리 알려졌다. 현재 경희사이버대학 원에서 문화예술창작 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주요저서로는 ‘고요한 중심을 찾아서’, ‘꽃과 어둠의 산조’, ‘현대시의 정신과 감각’, ‘김지하 문학연구’ 등이 있다.

2019년 시민인문학 ‘도서관에서 만난 사람’은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후 7시 연향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다. 순천/김영만 기자

### 13개 동 주민 150명 주민 참여해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실시 나서

순천시는 최근 13개 동 주민 150명과 함께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 주민자치형 마을복지계획 수립하기 위한 100인 원탁회의를 처음으로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타 지역에서 이웃의 무관심으로 인한 사건사고들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행정의 단기적 처방이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는 우려가 있어, 순천시는 민·관의 기능적 연계체계가 필요하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을 실시하게 됐다.

순천시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과 주민력 강화를 위한 마을복지계획 수립을 위해 10월 한 달 동안 13개 동별 ‘찾아가는 전문가 컨설팅’을 통해 그 간 추진했던 공공서비스 활동을 돌아보고 마을별 과제를 도출했다.

이번 ‘100인 원탁회의’에서는 그동안의 과제를 공유하고 토론해 ‘나눔, 소통, 함께’라는 키워드를 찾아냈으며 ‘하하동동 공유식당, 한식구’, ‘말뭉치 되는 안부 마실당’ 등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됐다.

시에서는 최종적으로 도출된 내용을 기본으로 동별 마을 복지 우선 순위와 대상을 선정해 마을특성에 맞는 복지계획을 11월 말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순천/김영만 기자

## 장흥군, 새마을지도자 해양 정화 활동 나서다

### 파래·갯데 등 해조류 자연 서식지

장흥군 회진면 새마을·여 지도자 회원들은 최근 회진면 해안선에서 해양쓰레기 수거 정화 활동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해양쓰레기 수거 지역은 평소 어민들의 이용이 없는 곳으로 겨울과 봄에는 파래, 갯데 등이 돌과 갯벌에 자라 자연 그대로의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다.

회진면 새마을·여 지도자 회원들은 지역 해안선과 선착장 주변 해양쓰레기를 깨끗하게 수거하며 마을정화 활동에 힘썼다.

회진면 새마을·여 지도자 회원은 “이번 해양쓰레기 수거함으로써 내년 봄에는 더욱 깨끗하고 질 좋은 해조류를 채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뿌듯한 심경을 전했다.



### 전남복지재단, 청렴도 높이기 온힘

전남복지재단이 내부 청렴도를 높이고, 부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연중 다양한 청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전남복지재단은 올 초 청렴리더그룹을 구성, 내부 청렴문화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

지난 13일엔 장성 청렴선진유적지를 탐방하고, 앞서 12일엔 재단 임직원들이 청렴 실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기 위해 전라남도사회복지회관 일대에서 도민 및 회관 이용자, 임직원 관 직원을 대상으로 청렴 캠페인을 펼쳤다.

신현숙 전남복지재단 대표이사는 “앞으로도 캠페인, 리더그룹 활동, 청렴교육, 청렴 골든벨 등 다양한 청렴정책을 계속 추진해 투명하고 깨끗한 전남복지재단 이미지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김덕윤 기자

## 남원시, 성공적인 도민체전 개최 위한 첫 걸음

### 도민체전 상징물 포스터, 엠블럼 등 심사 21일까지 입상후보작 공모 후 최종 확정

내년 5월 남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전북도민 체육대회 상징물인 포스터, 엠블럼, 마스코트, 슬로건 등이 결정됐다.

시는 2층 소회의실에서 제57회 전라북도민 체육대회 상징물 심사위원회를 가지고 이번 도민체전에서 사용할 상징물 8점을 선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심사는 지난 10월 7일부터 11월 6일까지 1달여간 전국에서 응모한 대회 상징물 총 215점을 대상으로 공무원, 시의원, 대학교수, 체육관계자 등 분야별 전문가 8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들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최종 당선작과 가작을 결정했다.

대회 포스터 부분에서는 포스터 부문에서는 광한루를 배경으로 춘향과 남원의 매력을 표현한 김명숙 씨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가작에는 남원의 전통문화와 아름다운 관광지 모습을 나타낸 이기남의 작품이 선정됐다.

대회 엠블럼 부분에서는 사람의 도시 남원을 상징하는 하트 형상을 모티브로 한 정세희 씨의 작품이 당선작으로 선정됐으며 가작에는 김명숙 씨의 작품이 또다시 선정되는 영광을 안게 됐다.

마스코트 부분에서는 김재호 씨의 성준향과 이몽룡을 마스코트로 함께 날려가는 모습을 역동적으로 나타낸 작품이 당선작으로 가작에는 김강민 씨의 작품이 선정됐다.

대회 슬로건 부분은 김효섭 씨의 ‘사랑의 도시 남원에서 하나되는 도민체전’이 당선작으로 가작에는 변

명열씨의 ‘천년사랑 남원에서 화합하는 도민체전’이 각각 선정됐다.

이날 선정된 작품에 대해 엠블럼·마스코트·포스터 등은 당선작 200만 원, 가작 90만 원, 슬로건은 당선작 80만 원, 가작 50만 원 등 총 1,000만 원의 시상금이 주어진다.

이번 상징물 공모전에서 결정된 작품들은 오는 21일까지 입상후보작 공모를 통한 표절 이의신청 접수 후 최종 확정되어 체전 상징물로 사용할 예정이다.

한편 심사위원장인 김동규 부시장은 “상징물 공모에 뜨거운 열기를 보여준 많은 응모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며 “이번 상징물 선정을 시작으로 내년 남원에서 개최되는 제57회 도민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반드시 성공체전을 이루겠다”고 밝혔다.

남원/이남출 기자

# 지하철 공사로 교통정체...광주시, 車제한속도 낮추기로



## 유관기관, 2호선 착공구간 대한 교통대책 보완 추진 백운광장~두암타운입구 양방향 버스전용차로 폐지

광주광역시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 등 유관기관은 도시철도 2호선 착공에 따른 교통상황을 모니터링하고 교통혼잡과 꼬리물기 해소를 위한 대책을 보완해 추진한다.

현재 공사가 이뤄지고 있는 상무중앙로 대남대로 필문대로 등 주요 도로의 제한속도는 60km/h이지만

공사구간 교통안전을 위해 제한속도는 50km/h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속도 하향구간의 속도표지판을 발광형으로 교체하고 노면표시 등도 정비했다.

대남대로와 필문대로 구간은 2~3개 차로가 점유됨에 따라 남은 4~6개 차로만 차량이 통과해 교통혼잡

이 심화되고 대기행렬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공사 구간별로 단절된 버스전용차로로 인한 잦은 차로변경으로 버스의 연속적인 주행이 불가능해 버스전용차로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백운광장에서 두암타운입구 삼거리 구간의 버스전용차로를 공사기간 임시 해제하고 단속을 유예하기로 했다. 버스전용차로의 해제로 일반차량의 전용차로 진입이 가능해짐에 따라 교통혼잡과 대기행렬이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꼬리물기, 불법유턴 등으로 인한 교통혼잡이 심화된 5공구 지산사거리 구간은 회전규제 방식과 신호체계를 변경한다.

지산사거리의 조선대에서 동명동 방면 좌회전은 금지하고 지산유원지입구교차로의 동명동 방면 좌회전을 허용하는 신호체계로 조정해 공사구간에 차량 진입을 최소화하고 필문대로 직진 신호시간을 확대해 소통능력을 향상시킬 예정이다.

또한 지산사거리와 지산유원지입구교차로에는 모범운전자 상시 배치해 꼬리물기 등 교통혼잡 요인을 줄이기 위한 노력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와 더불어 조만간 2공구 서구 금화로 송촌과인힐아파트에서 월드컵경기장까지 364m 구간 공사가 착공되면 차로가 6개에서 4개로 축소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한편 도시철도 2호선 공사는 지난 10월21일 4공구를 시작으로 총 6공구 중 5개 공구가 본격적으로 돌입했다.

박갑수 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조치로 공사구간의 교통문제가 완전히 해소되지는 않겠지만,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시민 여러분도 도시철도 2호선이 대중교통에 큰 획을 긋는 중요한 공사인 만큼 교통통제와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김덕윤 기자

## 보성군, 2019 대한민국 명차 품평대회 휩쓸어



### 청우다원 '청우명차' 독자 부문 '대상' 5개 제다업체, 독자·발효차 부문 선정

대한민국 최고의 명차를 선별하는 '2019. 대한민국 차품평 대회'에서 보성 청우다원 '청우명차'가 독자 부문에서 대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보성군은 청우다원을 비롯해 제다업체 5개가 독자·발효차 부문에서 2019년 대한민국 명차로 선정되며 '녹차수도 보성'의 명성을 굳건히 했다.

15일 국회의원 회관에서 열린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보성 청우명차는 상금 300만원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을 수상했다.

독자부문에서는 보성 원당제다원 '서리 꽃이 핀 차'가 은상에 이름을 올렸으며 보성 보향다원의

'녹차다미 그린티'와 보성 천보다원의 '천보명차'가 동상을 수상했다. 발효차부문에서는 몽충산다원 영농조합법인의 '차중의 차 홍차'가 은상의 영광을 안았다.

특히 이번 품평대회는 심사를 위해서 만든 출품자가 아닌 소비자들에게 판매하는 상품을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구입해 심사를 진행해 신뢰도를 높였다. 심사위원 10명 또한 공개모집을 통해 전문가 집단과 함께 심사를 진행했다.

보성군 관계자는 "대한민국 최고의 차로 선정된 보성차를 소비자가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국제유기인증, 군수품질인증제 등을 통한 철저한 품질관리는 물론 새로운 제다기술 개발을 통해 세계 최고의 명차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보성/김영안 기자

## 나주시, 기후변화대응 작물 발굴 벤치마킹

### (사)농촌지도자회 나주시연합회 40명 충북 충주시, 보은군 현장 학습 추진

나주시는 최근 (사)농촌지도자회 나주시연합회(회장 최원섭) 회원 40명을 대상으로 충북 충주시와 보은군에서 기후변화 대응작물 발굴 및 벤치마킹을 위한 현장 학습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작물 재배기술 벤치마킹 및 대체 작물 발굴을 위해 마련된 이날 현장학습은 충주시 유기농 채소 농가, 농업기술센터, 보은군 대추연구소(충북농업기술원), 김제시 죽산농업농조합 견학 등으로 진행됐다.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은 첫 일정으로 충주 유기농 채소 농가(류근모와 열 명의 농부)를 방문, 쌀 채소로 연 매출 100여만원을 달성한 25년 경력의 농가주로부터 영농 노하우와 마인드에 대해 교육 받았다.

둘째 날에는 충주시 농업기술센터 복숭아 시험장과 과수과학관에서 기

후변화에 대응할 과수 작물 현황과 재배 기술을 살펴봤다.

이어, 충북 농업기술원이 위치한 보은군 대추연구를 둘러보고, 대추 싹눈 연구 과정 및 병충해 예방 요령 등에 대해 교육받았다.

최원섭 회장은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신 소득 작물을 발굴하고, 재배기술을 습득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며, "앞으로도 농촌지도자회원이 농촌지역을 이끄는 핵심리더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자가 학습과 발전에 최선을 다해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촌지도자나주시연합회는 지난 1947년 4-H구락부 성인지도자로 출발해 농업기술전수, 농업인간의 소통 증진 등 농촌 지역 지도자 역할에 전념해오고 있다.

시는 지난 7월 18일 농촌지도자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경북농업기술원 권중배 박사를 초청, 지역 기후변화에 따른 대응 방안과 벼를 대체하는 양민, 오크라, 모링가 등 농가에 새로운 소득을 안겨줄 특용 재배 기술 교육을 진행한 바 있다.

나주/김영안 기자

## 김미선 대표, 농촌융복합산업 경진 대상 영예

### 지리산피아골식품 운영하며 농업 부가치 창출 성공모델 구축해



전라남도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최한 '2019년 농촌융복합산업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구례 김미선 지리산피아골식품 대표가 대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

농촌융복합산업 경진대회는 농촌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성공 모델을 발굴해 널리 알리는 행사로 2013년부터 매년 개최하고 있다.

올해는 전국 농촌융복합산업 인증경영체 31개소가 참가했다. 지난 9~10월 심사를 거쳐 본선 진출 12개소를 선정했다. 이어 지난 13일 전문심사위원과 국민심사단 30여 명이 참여하는 공개 오디션 방식의 발표평가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해 상금 500만 원을 수상했다. 국민심사단은 역대 수상자, 언론사, 파워블로거, 귀농인, 주부, 학생 등 일반 패널로 구성됐다.

김미선 대표는 26세에 대한민국 최연소 여성 이장이 돼 지역에서 생산하는 콩, 고사리, 산나물 등 농산물을 위탁 판매해주고 주민과 소통 화합을 이끌어 청년이 자자한 청년 여성농업인이다.

지리산의 깨끗한 자연환경에서 생

산된 농특산물과 지리산 고로쇠수액을 활용해 고로쇠 된장과 냄새 없는 청국장, 찹쌀 고추장, 고로쇠 간장, 전통메주 등을 상품화해 연간 5억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다.

또한 된장학교, 김장 담그기, 고로쇠 수액 채취, 산나물 캐기, 두부 만들기 등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 천혜의 관광 인프라와 스토리를 융복합, 농업의 가치를 공유하고 확대하는 등 새로운 농촌융복합 성공모델을 구축하고 있다.

김영신 전라남도 농식품유통과장은 "이번 대상 수상은 농촌 융복합산업 인프라 구축사업과 인증경영체 육성을 통해 전라남도 융복합산업화 성공사례를 발굴해온 노력의 결과"라며 "앞으로도 농업의 부가치 향상과 일자리 창출 등 농촌융복합산업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김덕윤 기자

## 영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실시

영암군은 최근 군청 왕인실에서 군 산하 공직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2019년도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을 해소하고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사회적 통합을 도모하고자 실시됐으며 유달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소장 서미화 전문강사를 초빙해,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장애인 관련 법률 및 제도 등을 인지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군 공직자들이 장애인에 대해 막연하게 가지고 있던 편견을 없애고 올바른 인식을 갖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및 편의시설 확충 등을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영암/이용만 기자

국민의 내일을 위한 정부혁신

**보다 나은 농어촌**

**KF** 한국농어촌공사

생명산업의 뿌리, 농어촌용수

# 물길이 생명길입니다

국토의 생명물길, 농어촌용수  
건강한 물순환을 변함없이 지켜가겠습니다

국토의 물길을 관리하는 것은 인체의 혈관처럼 생명을 주관하는 가치있는 일입니다.  
미래세대에게 아름답고 풍요로운 농어촌을 물려주는 일, 한국농어촌공사가 함께 합니다.

# 광명시 하안 3동 '희망그린박스'지원

### 중증장애인·와상환자 어르신 15가구 물품지원 바르게 살기 위원회 복지사각지대 해소 기여



거의 광명시 하안3동 바르게살기 위원회는 최근 관내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 15가구에 '희망그린박스'를 전달했다. 조겨울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정우 위원장을 비롯해 서완석, 김종민, 이경애 위원 등 바르게살기 위원들은 구역을 나눠 각각의 세대를 방문해 물품을 전달하며 이웃 간 정을 나눴다.

희망그린박스 지원사업은 매년 하안3동 바르게살기위원회 주관으로 기저귀, 욕창 방석 등을 구매하고 포장해 관내 중증장애인과 와상 어르신 15가구에 전달하는 하안3동 바르게살기위원회의 특화 사업이다. 희망그린박스 사업은 와상환자와 어르신들이 성인용 기저귀 구입비용이 부담되어 천 등을 사용해 생긴 욕창으로 고생하는 것을 보고 이정우

위원장 및 위원들의 제안해 시작하게 되었다.

중증 장애인을 둔 김 모 어르신은 "한 두해도 아니고 수십년째 애를 돌보고 있는데 어려운 살림에 기저귀 값도 만만치 않다보니 생활에 부담이 된다"며 "매년 이렇게 찾아와 기저귀, 심지어 쓰레기봉투까지 필요 용품을 지원해 주니 그저 고마움 따름이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정우 바르게살기 위원장은 "우리 동은 다른 동에 비해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장애인이나 어르신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고 또 늘어나는 추세다. 보다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용진 하안3동장은 "어려운 이웃을 찾아 지원에 적극 나서주시는 이정우 위원장님을 비롯해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면서 "앞으로도 복지 사각지대 소외 계층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단체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하안3동 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역사회 봉사뿐 만 아니라 2019 동사업 평가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뒀다. 지난 10월 2019 바르게살기운동의식합양 수련대회에서 최우수 등으로 선정되었으며 동별 장기자랑에서도 준수승하는 성과를 거뒀다.

광명/김미성 기자

## 평택 '사랑앓이' 나눔행사 전달

경기 평택시 안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와 새마을부녀회 남·녀지도자회는 15일 지역 내 저소득 120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행사를 진행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안중읍 새마을남·녀지도자회는 14일에 배추 약 500포기를 수확, 절이고 15일 당일에는 김장양념을 버무려 안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전달했으며 사랑이 가득 담긴 김장김치를 전달받은 안중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독거노인, 장애인가구 등 약 120가구를 직접 방문해 김장김치 전달과 함께 환절기 안부를 확인하는 시간을 가졌다.

새마을남·녀지도자회와 함께 김장 나눔 행사를 주관한 협의체 김태욱 민간위원장은 "각각 다른 단체들과의 협력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시기에 적절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관내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지역민들의 복지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조성재 안중읍장은 "쌀쌀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오늘도 함께 해주신 안중읍지역사회협의체 위원 및 새마을남·녀지도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며 "추운 겨울이 예고되고 있지만 안중읍만은 이웃의 온정으로 주민들이 따뜻한 겨울을 보내실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평택/이등원 기자

## 윤화섭 안산시장, 시민과 함께 사랑의 김장

2천6백여명 민간단체 회원 참석  
43.4톤 김장김치로 화합과 소통

윤화섭 경기 안산시장은 지난 16일 호수공원 중앙광장에서 열린 '2019 시민이 함께하는 사랑의 김장나눔' 행사에 참석해 "뽕맛이 사랑으로 담긴 김장 김치 덕에 시민 모두가 따뜻하고 건강한 겨울을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는 2,600여 명의 민간단체 회원 등 자원봉사자와 시민들이 참석해 43.4톤의 김장김치를 함께 담았다.

특히 우리 민족 특유의 김장문화와 나눔 문화를 경험하기 위해 멀리 대안에서도 로타리 클럽 회원

들이 참석해 이채로움을 더했다.

전문MC의 진행으로 초대 가수 공연과 각 단체별 활동 소개 시간도 함께 진행되는 등 축제 한마당으로 진행된 이날 행사는 내내 화합과 소통의 웃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날 많은 시민의 사랑이 담겨 버무려진 김치는 10kg씩 용기에 담겨 4천340가구 및 복지시설에 전달됐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어려움을 겪는 양돈 농가 지원을 위한 돼지고기 수육 시식행사와 국내산 돼지고기의 안전성을 알리는 캠페인이 함께 진행돼 돼지고기 소비부진을 줄여 어려움을 겪는 한돈 농가와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안산/이승배 기자

## '제15회 이흥렬의 락락페스티벌' 후원금



재능기부 공연과 나눔 경매로 진행돼  
저소득 가정 아동 위해 후원금에 기탁

조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후원회·경기지역본부가 '제15회 이흥렬의 락락페스티벌'에서 모금한 후원금과 후원물품을 수원시에 전달한다. 조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후원회·경기지역본부가 최근 수원SK아트리움에서 열린 이흥렬의 락락페스티벌에는 후원자 1,000여 명과 열대영 수원시장, 조록우산어린이재단 홍창표 부회장, 이경옥 경기후원회장 등이 참석했다.

조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후원회·경기지역본부는 후원금·후원물품 집계가 끝나는 대로 수원시에 전달할 예정이다. 수원시 후원금·후원물품을 저소득 가정 아동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라

고 전했다.

코미디언 이흥렬씨가 진행한 이날 락락페스티벌은 가수 변진섭·양수경·김용일·로켓펀치, 방송인 허참, 마술사 박준우 등의 재능기부 공연과 나눔 경매로 진행됐다.

나눔 경매에는 이외수 작가가 그린 선화, 축구선수 손흥민, 테니스 선수 정현의 친필사인 티셔츠, 축구공, 축구화, 테니스라켓, 테니스화 등이 출품됐다.

이흥렬의 락락페스티벌은 조록우산어린이재단과 조록우산어린이재단 후원회와 후원물품을 후원하는 나눔 행사다. '락락'은 '함께해서 즐겁고 나눠서 즐겁다'의 의미다. 2005년부터 매년 후원금을 모금해 소외계층 아동에게 15억여 원을 지원했다.

열대영 시장은 추사에서 "지난 15년 동안 도움이 필요한 아동들에게 관심과 후원을 아끼지 않은 조록우산어린이재단과 후원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조록우산어린이재단과 함께 어린이가 행복할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수원/김재일 기자

## 양주무한돌봄행복, '꿈꾸는 아이, 사랑 심는 우리'

관내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예술의 전당 방문해 문화공연관람

경기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는 최근 관내 저소득·위기가정 아동·청소년 및 가족과 함께 의정부시 예술의 전당을 방문해 '꿈꾸는 아이 사랑 심는 우리' 문화공연관람을 진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공연은 의양포카네기 총동문회에서 주관으로 준비된 '카네기 문화의 밤' 행사이며 양주라이온스클럽과 양주소나무라이온스클럽의 초청과 관람권 지원을 통해 진행됐다.

양주라이온스클럽과 양주소나무라이온스클럽에서는 관내 저소득 위기가정 아동·청소년 가정을 위해 이번 공연관람을 추진했으며 참여한 가족들을 위해 고급스런 저녁식사를 제공해 편안한 분위기에서 얘기를 나누며 식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은 물론 관람 후 귀가하는 아동들에게 색연필, 연필깎기, 목도리, 물케익, 용돈 등을 지원해 행복감을 가



양주시무한돌봄행복센터는 '꿈꾸는 아이 사랑 심는 우리' 사업으로 '문화', '비전', '교육'을 주제로 멘토링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지역 내 저소득 아동·청소년을 위한 지지체계를 강화하고 정서적 안정감을 형성하는 등 따뜻한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양주/김승근 기자

## 오산시 남촌동,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

장애인·독거노인 등 100여 가구에 전달  
8개 단체 회원 50여 명 참여 '이웃사랑'

경기 오산시 남촌동행정복지센터에서는 최근 저소득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펼쳤다고 1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남촌동 8개 단체연합 회원 등 50여 명이 참여해 배추

800포기의 김장김치를 담갔고 남촌동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독거노인 등 100여 가구에 김치를 전달해 훈훈한 정을 나눴다.

김택주 남촌동장은 "이번 김장은 남촌동 8개 단체 회원들이 혼연일체가 되어 지역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단체화합의 좋은 본보기가 됐다"고 밝혔다.

오산/김유범 기자

## 지역소식

### 광주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 공수확행사

경기 광주시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18일 퇴촌면 광동리 일원에서 협의체 위원 및 봉사자 등 2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사랑의 공수확' 행사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퇴촌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특화사업으로 민간의 후원을 받기 어려운 농촌 지역 특성상 직접 후원금을 마련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진근 민간위원장은 "정성스럽게 재배한 공 판매 수익금은 어려운 소외계층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라며 "후원금 마련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지역사회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지속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근창 퇴촌면장은 "지

### 의정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성금

경기 의정부시 신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위원장 이윤분)는 동절기 소외된 이웃을 돕기 위한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넌 잇기'에 동참하기 위해 성금 50만 원을 기탁하며 나눔 사랑 온도계의 온도를 높였다.

신곡2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같이 찾고 함께 도와요'라는 슬로건 아래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인 홍보 활동을 추진해 오고 있다.

광주/남시현 기자

의정부/김영근 기자

이번 성금 역시 협의체 위원들이 취약계층을 돕기 위해 바자회를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한 것이라 더욱 뜻깊은 나눔의 시간이 되었다.

김정미 신곡2동장은 "늘 남다른 사랑으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돕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계신 이윤분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100일간 사랑 릴레이 배넌 잇기가 연이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이천시 63동문골프회 동행 성금기탁

경기 이천시63동문골프회는 18일 관내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성금 300만 원을 행복나눔 동행에 기

탁해 왔다고 밝혔다

이날 기탁한 성금은 지난 10월 18일 뉴스프링블CC에서 이천시63동문골프회가 골프친선경기를 펼치며 관내 저소득가구 돕기 자선골프대회를 치르면서 모금된 성금이다.

박경렬 회장은 "회원들간의 단합과 친목도모에 그치지 않고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나눔도 실천할 수 있어 그 의미가 더해졌다"며 "자선골프대회를 준비한 회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했다"

이천시63동문골프회는 2018년도에도 소외계층 희귀성난치질환 세대에 3000만 원을 기탁해오는 등 매년 나눔활동을 실천해오고 있으며 이번 성금 또한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구에 지원될 예정이다.

엄태준 이천시장은 나눔은 관심에서 비롯되는 것인데,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지 않고 나눔을 실천해주시

감사를 표했으며 소중한 성금이 꼭 필요한 곳에 잘 전달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이천/남시현 기자

### 나주, 사랑의 땀감 나눔 추진한다

전남 나주시는 지역 숲 가꾸기 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잡목을 땀감으로 만들어 겨울철 난방취약계층에게 공급하는KSKA '사랑의 땀감 나누기 사업'을 추진한다고 18일 밝혔다.

사랑의 땀감 나누기 사업은 겨울철 저소득 가구의 난방비 경감은 물론, 잡목 수거에 따른 산불예방, 쾌적한 산림 경관 조성에 기여하는 등 지역민의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역 사회에 온기를 더해줄 사랑의 땀감은 숲 가꾸기로 수집한 간벌재, 임도변 피해목, 지장목 등 약 90



여 톤에 달한다.

시는 각 읍·면·동에서 희망자를 접수받아 대상자를 선정, 이달 18일부터 한 달간 독거노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21세대에 40여 톤의 난방용 땀감을 무상으로 우선 전달하고 남은 물량은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올해 안에 추가 전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나주/김영만 기자

# 경남도, 찬란한 가야의 영광 되찾으려 영호남 손 맞잡다



##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 경남·경북·전북 도지사 참석 김경수 지사 “영호남 화합 상징, 특별법 조속히 통과돼야”

경남도는 경북도, 전북도와 함께 지난 15일부터 17일까지 3일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영호남 가야문화권 한마당’을 개최했다. 가야사 연구복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가야문화권 지자체간 협력을 다진 이번 행사는 경남

도, 경북도, 전북도와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회장 고령군수 박용환)가 공동 주최했다. 지난 15일에 진행된 개회식에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이철우 경북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배기동 국립중앙박물관 관장, 주관사인 서

울신문 고광현 사장,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박용환 고령군수, 허성곤 김해시장, 백두현 고성군수, 구인모 거제군수, 문준희 합천군수, 김진기 경남도의회 ‘가야사 연구복원사업 추진’ 특별위원장이 참석했다. 김경수 도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가야문화가 영호남 화합의 상징이 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매우 뜻깊은 일”이라며 함께 참여한 지방정부, 국립중앙박물관, 언론 등에 감사의 뜻을 전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요청한 김 지사는 “무엇보다 가야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을 함께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별법이 통과되면 안정적인 체계적인 가야사 연구복원의 제도적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행사는 경남을 중심으로 영호남 전역에서 고구려, 백제, 신라와 무려 600년간 공존했지만, 삼국사 위주의 역사관에서 그동안 제 가치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야사의 가치를 재조명하고, 영호남의 상생과 협력의 길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중에는 ‘고성 오광대(중요무형문화재 제7호) 가면극’ 등 전통 예술과 현대 퍼포먼스가 어우러

진 다채로운 공연이 진행된다. 또한 가야의 역사와 문화 관광을 소개하는 통합 홍보관 및 지역박물관과 함께하는 가야문화유산 체험관도 운영하며, 가야문물을 3D 홀로그램으로 관람할 수도 있다. 15일 오후 3시에는 <가야문화권 지역발전 및 영호남 화합을 위한 포럼>이 대강당에서 개최된다. 경남도는 정부의 국정과제에 발맞춰 전 시군에 걸쳐 가야사 조사연구, 복원정비, 문화재 활용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경북, 전북과 함께 가야의 독보적인 존재 가치 증진을 위해 ‘가야 고분군’을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를 준비 중이다. 등재 신청 대상은 가야고분군은 경남의 김해 대성동, 함안 말미산, 고성 송학동, 창원 교동·송현동, 합천 옥전고분군, 경북의 고령 지산동, 전북의 남원 유곡리·두락리 고분군 등 7곳이다. 한편 내달 3일부터 90일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가야본성-칼(劍)과 현(絃)> 특별전이 열린다. 지난 1991년 <신비의 고대 왕국 가야> 전시회에 이어 28년 만에 기획된 전시에서는 국보 제275호 ‘말 탄 사람모양 토기’ 등 국내의 주요문화재 1,000여 점을 만나볼 수 있다. 경남도/최만식 기자

## 시흥시, 스마트시티 토크콘서트 ‘성료’

시민참여 기반 향한 첫 걸음 내딛어  
시민참여단 위촉, 현장견학 등 실시

경기 시흥시는 시민과 함께 스마트시티를 만들기 위한 토크콘서트를 최근 시흥ABC행복학습타운에서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시흥시가 국토교통부와 함께 마련한 자리로 시흥시 스마트시티사업단 이종목 단장,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창수 위원장, 시민참여단 이상근 회장, 국토교통부 심병섭 서기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조대연 단장 등 주요 내빈과 시민 110여 명과 함께 고민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본 행사에서는 심병섭 서기관이 스마트시티 국가정책방향에 대하여 해의 및 국내 사례를 들려 시민의 이해를 돕고, 조대연 단장은 스마트시티와 미래도시라는 이름으로 현재 진행 중인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와 연계해 스마트시티 시흥의 잠재성 미래 시흥의 모습에 대하여 설명했다. 또한 김산 이사가 데이터와 공유

를 중심으로 스마트시티와 시민에 대한 강연으로 스마트시티 시대에 시민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강연에 이어 토크콘서트에서는 이종목 단장, 김창수 위원장, 이상근 회장, 조대연 단장, 김산 이사가 패널로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시티의 정의와 시민의 중요성에 대해 각 전문가의 관점에서 이야기하고 시민의 공감을 얻는 시간을 가졌다. 이종목 스마트시티사업단장은 이번 행사는 스마트시티라는 단어가 시민 분들께 친숙한 단어가 될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 마련한 자리임을 강조하며 “시흥시가 도시의 주인인 시민의 입장에서 스마트시티를 추진할 수 있도록 시민 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시흥시가 그 디딤돌 역할을 잘 담당하겠다”고 말했다. 시흥시는 사람 중심의 스마트시티를 조성하기 위해 시민참여단을 위촉하고, 스마트시티 아카데미 및 현장견학 등 시민의 이해와 견문을 폭 넓게 확장하고자 꾸준히 노력해오고 있다. 시흥/이승배 기자

## 의정부시, 아이사랑 수필 공모전 시상식

저출산 극복 시책으로 공모, 호응 커  
북콘서트 통해 해결하기 위해 추진

경기 의정부시는 18일 의정부문화원 문예극장에서 의정부시가 주최하고 의정부문화원이 주관한 ‘제2회 의정부시 아이사랑 수필 공모전 시상 및 북콘서트’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저출산 극복 시책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공모를 통해 선정된 14편의 당선작 시상 및 수상자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를 나누는 북콘서트, 방송인 이정수의 ‘행복

과 웃음 지으며 사는 인생’이라는 주제의 강연 등으로 진행됐다. 올해 2회째를 맞은 의정부시 아이사랑 수필 공모전 시상 및 북콘서트는 저출산 문제 극복의 주체는 시민임을 인식시키고 해결의 실마리를 찾고자 추진되었으며, 시민들의 큰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유교찬 기획예산과장은 “의정부시는 앞으로도 저출산·고령사회를 대처함에 있어 시민 모두가 행복한 생애 주기별 맞춤형 정책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의정부/김영근 기자

## 고양시립합창단, 정기 연주회 ‘2019 송년음악회’

다채로운 공연 연주 문화예술도시 발돋움  
내달 19일 아람음악당서 헨델 메시아 공연

다채로운 공연과 연주 문화예술도시로서 고양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는 고양시립합창단이 제66회 정기연주회, ‘송년음악회, 헨델 메시아’를 오는 12월 19일 저녁 8시에 고양아람누리 아람음악당에서 개최한다. 경기 고양시립합창단, 4인의 솔리스트, 알테 무지크 서울의 연주로 연말의 기쁨을 함께하는 웅장한 무대가 펼쳐질 예정이다. 음악의 어머니 헨델의 ‘메시아’는 하이든의 ‘천지창조’, 멘델스존의 ‘엘리아’와 함께 세계 3대 오라토리오로 손꼽히는 작품으로 총 3부 53곡으로 이뤄져 있으며 제1부에서는 예언과 탄생, 2부에서는 고난과 속죄, 3부에서는 부활과 영생의 내용을 담아 예수 그리스도의 일대를 들려준다. 헨델이 오페라에서 보여줬던 드라

마틱하고 서정적인 표현력과 헨델 음악의 특징인 매혹적인 선율과 화려한 기교의 장법이 오라토리오에서도 여전히 구사되고 있다. 관현악 서곡으로 시작해 합창과 중창, 아리아 등으로 다채롭게 구성되어 있고 특히 2부의 마지막에 등장하는 44번째 합창곡 ‘할렐루야’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알려진 명곡이며 크리스마스 및 송년 시즌에 가장 많이 연주되는 작품이다. 헨델이 메시아를 통해 전하려는 희망의 메시지에 고양시립합창단의 특별한 해석을 더해 더욱 뜻깊은 시간을 가질 것으로 보인다. 고양시립합창단은 이번 정기연주회를 통해 2019년을 보내며 한 해 동안 땀 흘린 고양시의 105만 시민들에게 선물같은 공연을 선사하려고 한다. 특히 국내 최정상 솔리스트 소프라노 김방술, 메조 소프라노 김정미, 테너 서필, 바리톤 성승욱과 함께하고 뛰어난 연주력을 인정받고 있는 알테 무지크 서울과의 협연과 2019



년 새롭게 부임한 임한귀 상임지휘자와 함께 윤택하고 밝은 음색의 하모니와 바로크 음악의 정통한 해석을 창출해내는 고양시립합창단의 연주를 통해 감동의 송년음악회를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고양/김성태 기자

## 오산 ‘시민과 함께 기록문화대학’

경기 오산시는 오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 오산시청 물향기실에서 오산 시민 50명을 대상으로 ‘2019 시민과 함께 하는 기록문화대학’을 개최한다. 지역사회 협력사업으로 한국복지대학교와 공동으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시민들에게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기록문화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이번 기록문화대학은 기록으로 보는 마을이야기, 일상의 기억, 나를 기록하다, 과학을 통해 본 종이의 역사, 종이의 미래, 한지공예 체험학습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행사는 참가비, 체면비, 교재비가 전혀 무료이며 양일간 운영되는 프로그램에 모두 참여할 경우 한국복지대학교 총장명의로 수료증이 발급되며 한지항아리 만들기 체험을 할 수 있는 특전이 주어진다. 시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오산 시민들이 우리지역에 대한 자긍심을 일깨우고 기록 관리에 대한 인문학적 소양을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오산/김용범 기자

www.wawa105sujin.com    문화매일    facebook.com/wawa105sujin

발행·편집인 : 최수진 / 부사장 : 김영근 / 편집국장 : 정채두

서울본사 : (우 08639) 서울시 금천구 시흥대로 97 (시흥동) 시흥유통상가 12동 106호

경기본사 : (우 14220) 경기 광명시 오리로 970 크로앙스 (광명동) 2층 201호

대표전화 : 1899-9659    2009년 4월 20일 창간

편집국 : 02-2612-2959    2009년 3월 12일 등록번호 : 경기, 가50079

이메일 : ekwk44@naver.com    본지는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한다.

sujin004344@hanmail.net

구독신청·배달안내 : 1899-2959    구독료 : 월 15,000 1부 800원

좋은사람들의  
평화도시

Hi 연천

엄격한 심사를 거쳐  
**연천군수가 인증**

명품 브랜드로서  
**품질의 우수성 보증**

북쪽의 깨끗한 물과 남쪽의 비옥한 토지에서 정성들여 생산된  
**청정지역 우수 농/특산물**

DMZ 청정 연천  
농특산물 통합브랜드

**남토복수**  
연천군수인증

연천군

## 독도, 일본주장 왜 허위인가? II

# “독도, 일제강점과 관계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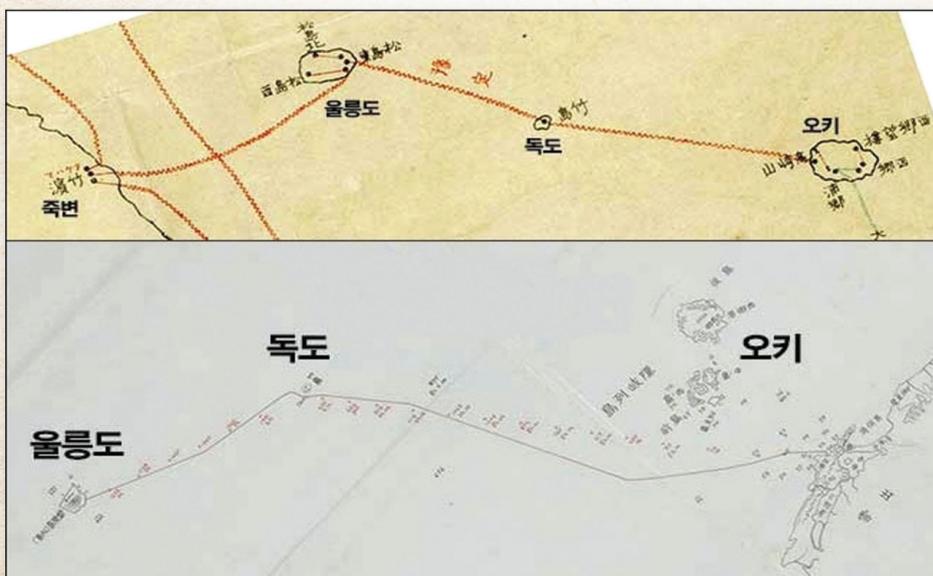
## 독도가 일본 침략

### 첫 희생물이 된 경위는 이렇다



독도 가설 망루건설물 배치도

※망루는 현 독도경비대 막사, 감시소는 현 독도 등대자리



해저전선 부설도

1904년 2월 러일전쟁을 일으킨 일본은 러시아 함대가 동해로 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독도에 망루를 설치하기로 한다. 일본 해군은 1904년 9월, 1905년 1월과 6월 등 수차례에 걸쳐 군함을 보내 독도에 대한 조사를 하고 러시아 군함이 독도 부근에 표박해 있는 것을 확인한다.

이에 일본 해군은 7월 25일에 망루 공사를 시작해 8월 19일부터 망루를 가동했다. 당시 일본은 울릉도-독도-오키(隱岐)를 잇는 해저 통신케이블 부설공사를 추진했으며, 독도에는 관측병 등 4명의 군인이 체류했다. 시마네현은 망루 설치 과정에서 강치잡이업자 나카이 요사부로를 앞세워 독도를 무단 편입했다. 망루요원은 러일전쟁 종전 후 10월 24일 철수했으며, 해저케이블은 1945년 패전할 때까지 운용되었다.

일본은 1904년 2월 23일 이미 강압적으로 체결한 한일의정서에서 ‘군략상 필요한 지점을 수기(隨機) 수용할 수 있다’고 명시해 놓았다.